



계간 쟁기

이야기 | 생각 | 문화

겨울 2019

“삶의 학교”



- 학교의 이로움은? D.L.메이필드
- 세상이 교실이다 피다 마이어
- 기독교인과 공공학교 캐서린 맥닐윤
- 평양의 아이들 스티븐 윤



수잔 웹 트레게이, '나의 용감한 미래', 아크릴 수지, 61x61cm

이 그림은 웹 트레게이의 '옛날 옛날에 자유롭게
풀어 키운 아이들이 있었어' 시리즈 중 하나이다.
화가는 시내의 한 가정에서 놓아 키우는 닭들이
오늘날의 아이들보다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있음을
깨닫고 연재를 시작했다. "즐넉기 놀이를 하며 함께
외치는 소리로 시간을 재었던 소녀가 되는 것은 어떤
기분일까? 거리의 조명등이 켜지기 전에 자전거로

몇 마일을 밟을 수 있는 지 거리를 측정했을 수
있었던 때는?" 1946년 미국 뉴햄프셔 콩코드에서
태어난 수잔 웹 트레게이는 미 전역에서 인정받는
화가다. 최근 펴낸 책 "이천 개의 그림 제목2000
Painting Titles"(2018 미번역)에 이 연재 그림이
담겨 있다. 웹 트레게이의 다른 그림들을 더 보려면:
susanwebbtregay.com.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겨울 2019, 16호

편집자의 편지	원마루	3
가족과 친구들		4
버레나 아놀드	모린 스윙어	6
툰드라 백조	드와이트 웨어햄	7

특집: 삶의학교

학교의 이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D. L. 메이필드	8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13
세상이 교실이란다	피다 마이어	15
기독교인들은 공공학교를 버려야하는 걸까?	캐서린 맥닐	20
내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	페이즐리 힐레가이스트	23

비평과 인터뷰

책 잘 읽는 사람	카렌 스왈로우 프라이어	24
펜과 키보드	마크 바우러라인	30
캔실드와 엠마누엘	드니스 위마나	32
평양의 아이들	스티븐 윤	35
미카엘과 마가렛타 자틀러	제이슨 란젤	40

아티스트: 구스타프 텐그렌, 파벨 쿠친스키, 세리 요크

www.plough.com/ko

계간 <쟁기>를 펴내는 공동체를 만나세요



쟁기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더불어 사는 사람들인 브루더호프가 펴내는 잡지입니다. 브루더호프는 가족과 미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멤버들은 산상수훈의 정신에 따라 철저한 제자도를 실천하는 일에 헌신합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장에 묘사된 예루살렘의 초대 교회에 영감을 받아 사유 재산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평화와 정의, 섬김의 삶을 살아갑니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사람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며 현재 미국과 영국, 독일, 호주, 파라과이 등에 있는 농촌과 도시 공동체에서 약 2,900명의 사람들이 어울려 삽니다.

홈페이지: bruderhof.com/ko

<쟁기>는 일상의 믿음과 생동에 영감을 주는 독창적인 이야기와 생각을 다룹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모범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바꾸고 새롭게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며, 신념은 달라도 공공선을 위해 일하는 다른 이들과 연대하려 합니다. <쟁기>는 독자들과 글쓴이들, 그리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연결되는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에 적힌 대로 우리가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말입니다.

<쟁기>는 편집부의 생각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에게 참고가 될 만한 저자의 글을 신습니다. 기고문은 쟁기의 편집 방향이나 브루더호프 공동체의 입장과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편집자: 피터 맵슨, 비어리 홀리엇, 샘 하인, 오지니, 오케빈, 박성훈, 원마루. 번역 위원: 전나무, 전남식, 배지영, 조남규. 크리에티브 감독: 클레이 스트로버. 미술: 에멀리 알렉산더. 디자인: 로잘린드 탐슨. 한국판 디자인: 산위의동네. 관리: 새나 구드윈. 객원 편집자: 모린 스윙어, 수잔나 블랙.

창간 편집자: 에버하르트 아놀드(1883-1935)

<쟁기> 16호, 인생의 학교, 2019. 3

쟁기출판사 발행, isbn 978-0-87486-244-7

Copyright © 2019 by Plough Publishing House.

표지 그림: 파벨 쿠친스키.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뒤표지와 표지 안쪽의 그림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편집부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T: 845.572.3455

United Kingdom
Brightling Road
Robertsbridge
TN32 5DR
T: 01580.883.344

Australia
4188 Gwydir Highway
Elsmore, NSW
2360 Australia
T: 02.6723.2213

<쟁기>는 플라우 출판이 펴내는 간행물입니다.

Plough Publishing House, PO Box 398, Walden, NY 12586, USA.

구독 문의: info@plough.com

쟁기책방: www.podbbang.com/ch/1770358

삶의 학교

“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 동안 브루더 호프 공동체에서 이따금 보내 드리던 소식지 <쟁기>를 못 보내 드린 지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편집부 인원을 보충하고, 영문 계간지 <플라우 퀴털리 Plough Quarterly>와 새로 보조를 맞추느라 그랬습니다. 2014년 여름호부터 발행되어 온 영문 <플라우 퀴털리>는 산상수훈, 초대교회, 정의, 교육, 평화 등의 주제를 다루어왔고, 거의 매 호마다 한국의 필자가 쓴 글이나 한국과 관련된 글을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호부터는 한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판으로 동시에 발간하게 됐습니다. 형제애적 삶과 생명, 평화 등의 주제를 세계 여러 곳에 사는 독자들과 함께 가슴을 맞대고 생각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번 호 주제는 '삶의 학교'입니다. 교육은 오늘 한국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매일같이 씨름하는 주제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 경쟁에 신물이 난 부모님과 아이들은 다른 길을 찾고 있고, 오래 전부터 다양한 형태의 대안 교육이 실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공교육 안에서 더 나은 길을 찾길 희망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 사회 전체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은 우리 사회에서 진정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를 숨김없이 보여줍니다. 기독교 전통에서는 제자도의 삶 또한 학교입니다. 교육의 공동체에서 우리는 힘을 추구하기보다는 약함에서 강함을 찾습니다. 다른 이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하기보다는 타인을 섬기려고 합니다. 자신만의 열정만 좇기보다는 부르심에 순종합니다.

<쟁기> 16호에서는 우리 사회가 교육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짚어보기 위해 교육을 주제로 쓴 다양한 글들을 담아봤습니다. 세 자녀의 어머니인 캐서린 맥닐은 기독교 인들을 공교육을 버리지 말고 그곳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어 소외된 아이들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반면에 역시 세 아이의 어머니인페이즐리 헬레가이스트는 사실 역사적으로 홈스쿨링이 표준이었다며 왜 자

기 아이들을 공교육 학교에 보내지 않는지를 설명합니다. 아울러 D. L. 메이필드는 영재교육과 학교에 점수를 매기는 행태를 꼬집으며 아이들이 제대로 꽃피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외에도 블룸하르트의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한 생각, 베테랑 교사 할머니가 이제 막 성년이 된 손녀에게 보내는 편지도 교육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키보드 대신 펜을 쓸 때 얻는 유익에 관한 마크 바우러라인의 글도 흥미롭고, 평양의 소아마비 아이들을 도움으로써 전세계 어른들의 마음을 녹이고 있는 의사 스티븐 윤의 이야기도 우리에게 힘을 줍니다.

이번 호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족에게 교육은 무엇인지 생각해 봤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많은 것을 배우고, 선생님, 친구들과 많은 것을 경험하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집에 돌아온 아이들은 학교에서 본 것들을 신이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하루의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저는 그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잠깐만 생각을 하기도 하고, 책을 읽어주다가도 즐기기도 합니다. 그때마다 “여보”하는 소리에 깨기도 하고, 아이들끼리 싸우는 소리에 정신을 바짝 차리기도 합니다. 커가는 아이들을 생각하며 아내와 함께 이렇게 저렇게 길을 찾아가려 하지만 여전히 배울 게 많습니다.

요즘 들어서는 함께 있으며 서로를 느끼고 알아가는 것이 어쩌면 중요하고 오래 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며칠 전에는 이제 십대가 막 되어가는 큰 아들과 공동체 마구간 청소를 했습니다. 함께 오물을 치우고 마구간 바닥을 비로 쓴 다음에 잠깐 산책을 했습니다. 함께 걸으며 오늘 있었던 일 이야기를 듣고, 아이가 궁금해 하는 것에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며 걷는 일이 좋기만 하고 그 단순한 일이 아이를 알아가고 함께 성장하는 길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삶의 학교를 그렇게 함께 걷습니다.

평안하세요,
원마루 드림





콜롬비아 평화재건 콘퍼런스, 2018 (사진 제공: Jardely Martinez)

콜롬비아 평화재건

1958년 이후로 콜롬비아 내전에서 220,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고, 현재 평화 분위기도 언제 깨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그런 가운데 콜롬비아 메노나이트 공동체가 국가적 상처와 분열을 용서로 치유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여름 평화재건 캠프에 과테말라, 멕시코, 호주, 미국, 콜롬비아에서 온 약 50명의 참가자가 분쟁 해결과 양심적 병역 거부, 피해자-가해자 대화에 관한 워크숍을 열고 우애를 다졌다. 이번 캠프에는 이전 내전에 참가했던 군인, 피해자도 함께했다. “우리의 목표는 내전으로 고통 겪은 사연을 서로 나누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평화의 공간을 갖는 것입니다.” 캠프 주최 측의 재들리 마티엔즈의 말이다. 참가자들은 남수단에서 용서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는 책,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선물로 받았다.

남수단에서 이는 용서의 물결

존 콜 다우는 내전 당시 수단 군대가 마을을 파괴할 때 탈출했던 ‘수단의 잃어버린 소년들’ 가운데 하나이다. 수년 후, 존은 남수단으로 돌아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나

라에 평화와 정의를 세우기 위해 기독교 리더 양성을 목표로 유바(Juba)에 학교를 시작했다.

최근 몇 달 동안 존과 직원들은 쟁기 출판사의 《왜 용서해야 하는가?》를 읽고 독서 토론을 해 왔는데 그제 학교에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왔고 그 결과 용서와 화해, 회개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저희는 미리 두 단원을 읽고 모여 두 시간 동안 토론을 합니다. 제자도를 배우고 하나됨을 경험하며 서로 가르칠 수 있어서 정말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나 극단주의, 용서하기와 같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교사와 직원들이 친구나 배우자를 데려와 함께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로 한 사람이 2년 전 자신을 쏜 군인을 공개적으로 용서했다.

하느님 백성의 신학 강좌

로마에 위치한 폰티피컬 라테란 대학에 ‘하느님 백성의 신학’이란 2년 과정의 온라인 강좌가 영어와 독어로 신설되었다. 기독교 일치 증진 협의회 의장인 쿠르트 코흐 추기경은 이 온라인 강좌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이 과정은 이스라엘에 기원을 둔 ‘하느님의 백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다양한 신학 분야를 하나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계몽주의 이후 근대에서 제기된 신앙과 교회라는 논점이 시종일관 다뤄지게 될 겁니다.” 이 과정에는 ‘기독교는 왜 ‘종교’가 아닌가?’ ‘왜 유대 사상이 교회에 필수적인가?’ ‘믿음과 역사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 같은 강의들이 포함되어 있다.



‘하느님 백성의 신학’ 과정은 제2차 세계 대전과 홀로코스트 이후 독일에서 시작한 가톨릭 통합 공동체 (Katholische Integrierte Gemeinde: KIG)가 시작한 사업이다. 이 단체는 허버트와 트로디 월브레커 주도로 젊은이들이 모여 당시 독일 기독교가 왜 나치 이데올로기와 잔혹 행위를 막지 못했는지 논의하면서 시작되었다. 현재 KIG는 평신도와 사제, 가족과 독신자들이 회원이 되어 ‘믿음과 이성을 현대적으로 접근해서 기독교 신앙을 온전히 실현하는 공동체’를 추구하고 있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75주년 기념식

클라렌스 조던이 미국 조지아주 작은 오두막에서 세상을 뜬지 50여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올봄 80대의 지역주민, 청년 활동가, 경험 풍부한 공동체 회원, 농업 마니아 등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기념하기 위해 모였다. 1942년에 농부이자 남침례교회 목사였던 클라렌스는 경제정의와 인종평등을 실현하며 함께 사는 하나님 나라의 시범 마을로서 코이노니아 공동체를 세웠다. 백인우월주의 결사 단체인 KKK 단의 테러와 전면 불매운동 등 지역의 적

대적 태도를 극복하고 코이노니아 공동체는 지금까지 존속해왔다. 50년 전에는 흑인을 교회에 데려왔다는 이유로 공동체 멤버를 쫓아냈던 지역 교회 두 곳도 이번 콘퍼런스를 서로 앞다투어 주최하길 원했다고 한다.



코이노니아 공동체 식구. 왼쪽부터 노리스 해리스, 스티브 그라우트, 브렌 더베이가 75주년 기념식에서 공동체 발자취를 설명해 주었다. (사진 제공 Cindi Cox, Albany Herald)

왜 용서해야 하는가



이 책의 인세는 모두 어린이어깨동무를 비롯한 화해와 평화를 위해 일하는 단체에 기부됩니다. 용서의 파문을 일으켜 보세요. plough.com/ko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 | 원마루 옮김 | 272쪽 | 11,000원

버레나 아놀드

모린 스윙어

“**흠**, 내학력은 중학교 2학년이 전부인데,” 버레나는 어이없는 오타를 짚어낼 때마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 편집자들을 향해 쓰으 웃음 짓곤 했다. 우리 플라우 출판사(한국명 쟁기)의 경륜있는 교정자였던 버레나 아놀드는 보통 출판을 코 앞에 두고 출력된 원고를 받아보았다. 이 단계까지 왔다면 그녀가 받아본 원고는 교정을 철저히 끝낸 것이어야 했다. 버레나의 교정을 우리끼리는 ‘참사 체크’라 부르며 ‘오늘은 무사하길’ 바랬다. 그러나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이, 그 누구도 못 봤던 참사들을 잡아내기 시작했다. 실종된 단어, 뒤죽박죽이 된 문장 그리고 터무니없는 구두점들은 왜 그녀만 보면 튀어나오는 걸까?



버레나 아놀드
(1938-2018)

공식 학력은 중학교 2학년이라고 해도 버레나는 굵주린 듯이 읽어대는 독서광이었다. 스위스의 평화주의자이며 이민자였던 부모에게 태어난 버레나는 열두 명의 자녀 중 하나였고, 파라과이 오지에서 자라났다. 1961년 미국으로 이민 올 당시 스물두 살이었으니 영어가 모국어는 아니었으나 몇십 년 동안의 독서 생활을 통해 그녀는 다른 영문학 전공자들보다 뛰어난 언어 감각을 터득했다.

이후에 출판 일에 참여했던 버레나는 여덟 명의 자녀를 키웠고, 십팔 년 간 브루더호프의 장로요 목회자이며 저자 활동을 했던 남편 요한 크리스토프 아놀드와 함께 섬김의 사역을 감당했다. 그녀가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한 일은 1990년 증반에 플라우에서 출간한 남편의 책 열두 권의 교정을 돕는 것이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는 아예 본격적으로 플라우 이름으로 나온 무수한 책들을 꼼꼼히 훑어 보았다.

버레나가 언제 그런 작업을 했는지는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1938년에 태어났으니 칠순에 이른 나이였으나 버레나와 크리스토프는 여전히 브루더호프 국제 운동의 활발한 역할을 담당했다. 오십 년을 넘긴 결혼 생활을 통

해 그 두 사람을 떼 놓는 일은 상상할 수도 없었다. 버레나는 남편과 함께 교황들과 대통령들 그리고 사형수들을 방문했다.

그런데 십팔 개월 전 그녀는 미망인이 되었다. 그러나 버레나는 남편과 했던 목회 사역을 지속하며 하루에도 몇 차례씩 개인들과 부부들을 만났다. 그것뿐인가? 마흔네 명의 손주들과 여섯 명의 증손주를 둔 덕성 많은 할머니는 지속적으로 공동 세탁실에 매일 나와 삼백 명의 공동체 식구들을 위해 티셔츠와 청바지를 개졌다.

버레나는 자연 속에서 많은 교정 작업을 해냈다. 원고와 카메라(야생 사진가이기도 했다)를 손에 들고 숲으로 들어가 가

장 좋아하는 곳을 찾아 자리를 잡곤 했다. 하얀 꼬리 사슴 번성기라면 그곳은 사슴의 눈길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으리라. 그녀는 조용히 교정지를 점검해 나가면서 사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렸다.

버레나는 전설적인 직언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그녀의 입에서 직언이 터져나올 때면 움찔 주춤하기도 이어져 나오는 유머와 겸손함에 무장해체를 당해버렸다. 카드 게임에서는 누구라도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다. 주류에 저항하는 기질이 있어서인지 사람들을 당황케 하는 걸 즐겼다. 칭송만큼 그녀의 질책을 자아내는 것도 없었다. 아마 이 글에 대해서도 혀를 끌끌 차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버레나는 천국에서 투덜거리는 썸이네. 그녀는 5년 동안 암과 투병하다가 지난 해 9월 21일에 운명했다. 뉴욕주의 돌란 천주교 주교는 “여족장이 분향으로 돌아갔다.” 고 추모했다. 우리는 버레나를 헤아릴 수 없이 그리워할 것이다. 플라우(쟁기) 독자여! 만일 우리 책과 잡지에 영문 오자를 발견한다면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지? 버레나는 이제 자신의 새 분향에서 더 대단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



툰드라 백조

드와이트 웨어햄

사진: 렌디 오하라, 작가의 허락을 받고 사용

잠 자리에서 겨우 일어났는데 어떤 소리가 들렸다. 틀림없는 툰드라 백조들의 소리였다. 밖은 아직도 어두웠으나 나는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고 방충망에 얼굴을 돌려 귀를 기울였다. 백마리나 넘을까 싶은 백조들의 우짖는 소리가 가까이 들리는가 싶더니 지평선을 향해 멀리 사라져갔다.

집을 나선 지 십오 분이 된 그 순간에 두 번째 군락이 내는 야생의 울음소리가 들렸다. 마치 내 머리 바로 위에서 나는 것 같았다. 고개를 들어 보니 산봉우리를 이룬 구름 사이로 별들이 보였다. 그 맑은 새벽 하늘 갑자기 어

디선가, 백에서 백오십 마리에 이르는 백조들이 아름다운 야성의 브이 자를 그리며 나타났다. 그 새들은 가까운 리조트의 조명을 받으며 어두운 하늘을 하얀 눈같이 수놓았다. 새들은 북동쪽을 향해 사라지면서 끊임없이 신비로이 우짖었다. 그 광경을 바라보는 사이로 별뿔별이 새벽녘 하늘을 가로질렀다.

학교에 들어서는 아이들의 종종 걸음과 더불어 세 번째 무리가 몸체를 드러냈다. 날은 이미 환하게 밝았는데 아이들과 나는 서른 두 마리의 백조를 함께 지켜보았다. 정말 대단한 1교시 수업이었다. ➤

드와이트 웨어햄은 자연에 관한 것이라면 모두 열광하는 초등학교 교사이며 뉴욕 주 에소푸스의 메이플릿지 브루더호프에 산다.



학교의 이로움은 과연 무엇인가?

아이가 성장하도록 돕는 것은 내 아이만을 우선시하는 것이 아니다.

D. L. 메이필드

항 상 부모들이 하는 말이긴 하지만, 정말이다. 내 딸은 정말 대단하다. 4살 때 이미 스스로 읽는 법을 터득했고, 항상 섬세하고 불안을 쉽게 느끼는 성향이면서도 이야기를 들으면 항상 몇 발자국 앞서 있다. 내 딸이 다니던 학교의 영재 프로그램 테스트에서 통과했을 때에도 우리는 그리 놀라지 않았다.

나는 원래 홈스쿨링을 해왔던 터라 영재선발에 대한 전 과정에 크게 호기심이 발동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내 딸이 아니라 우리나라 교육에 대한 나의 가치 판단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연방 지침에 의거, 모든 공립 학교들은 '영재학생'들을 파악하고 지원할 재원을 제공해야 한

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영재학생들은 똑똑하고 더 높은 수준의 수업과 더 많은 관심을 받을 만하다고 가정한다. 하지만 항상 그런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 딸의 2학년 선생님은 '똑똑한' 아이와 '재능 있는' 아이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셨다. 전자는 성취도가 높은 사람들을 뜻하는 반면, 후자는 공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몇몇 교육학자들은 영재성은 사실 뇌의 불균형 발전에 따른 문제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이런 아동의 뇌는 복잡한 수학 문제를 이해, 흡수할 수 있으면서도 사회적으로는 비언어적인 요소를 파악하지 못하고 게임에서 배제된다. 또한 ADHD, 강박증 등과 같이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D. L. 메이필드는 현재 난민 공동체와 함께 일하며 "동화되지 않으면 집으로 가: 신앙의 재발견을 향한 실패한 선교의 기록 Assimilate or Go Home" (한국어 미발간)의 저자로, 남편과 사랑스러운 두 자녀와 함께 미국 포틀랜드에 살고 있다.

서도 고도의 학습 능력을 지닌 학생들(두번 예외 학습자 2e learners라고 한다)에 대한 인식도 높아지고 있다.

교육을 권리이자 경쟁으로 인식하는 미국의 교육현장을 보노라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과 우리 아이들을 지지하는 행위 간의 팽팽한 대립은 소위 영재 프로그램에서 잘 나타난다. 나는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누가 영재로 판명될까? 어느 학교가 모두가 탐내는 추가 재원을 얻을까? 그리고 영재인 내 아이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길 원했나? 등 의문이 들기 시작했다.

천부적인

재능이 있는

내 아이가 교육을

통해 무엇을 얻길

바랬는가?

마지막 질문은 아마 우리 자신에게 더 많이 하는 것이다. 내게 좋은 학교란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보살핌을 잘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고, 모든 학생들을 동등하게 대하며 학생들이 세상에 대한 호기심을 품어 평생 학습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에게 좋은 학교란 훌륭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더 훌륭한 시민이 되도록 독려한다거나 유망 직종에 취업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지원하는 곳이다.

그러나 실제 우리는 이것으로 학교를 평가하지 않는다. 적어도 내 주변 지인들을 보면 사람들은 학교의 웹사이트에 나와 있는 표준화된 시험 성적에 따라 정해진 순위로 각 지역의 공립학교에 대해 알게 된다. 이런 평가 방식이 사회, 정서적인 면에서의 지적 능력, 학생 참여 정도, 지역 사회의 영향력 또는 인간/관계 중심 문화를 반영하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고 이런 평가가 학교에 대해서는 가히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교사, 학생, 학부모의 의견에 좌우되지 않는다.

교육학자들이 제안한 바와 같이, 교육 환경, 시민 참여, 자원 분배, 학업 진도와 같은 실질적인 가치들을 더 잘 반영한 기준이 지역 사회의 모든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는 학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점수를 넘어서 Beyond Test Scores”(한국어 미발간)의 작가 잭 슈나이더는 이웃 학교에 대한 평가 방식에 분

노하면서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슈나이더는 우리가 교육을 공공재가 아닌 사유재로 보기 시작하면서 교육이 경주처럼 변질되었다고 지적한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위치재라고 부른다. 즉, 당신의 교육은 다른 사람의 것보다 더 좋을 때에만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성취도가 낮은 학교에 자원을 투입할 동기가 거의 없어지고 결국 차별과 불평등만이 넘쳐난다.

슈나이더는 조사 대상이 될 수 없는 성공의 척도에 대해 연구 중인데 여러 연구가, 교육자, 학자 등과 함께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학교들을 분석하는 방법을 바꾸도록 애쓰고 있다. 여기에는 직원, 학생, 지역민들이 학교를 바라보는 시각도 평가의 중요한 부분으로 간주한다. 그런 점에서 슈나이더 및 그와 함께 작업하는 사람들은 현장의 실제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학교가 지역 사회에 기여하고 있는지를 제일 잘 안다고 주장한다. 이런 유형의 분석을 하려면 더 일이 많지만, 나는 이것이야말로 학교가 모든 아이들이 꽃피울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적절한 조치라고 믿는다.

학교를 좋다, 나쁘다 또는 바람직하다, 부족하다 등으로 분류하게 되면서 지역 사회 전체가 바뀌었다. 방법이 있는 사람들은 소위 좋은 학교가 있는 곳으로 이사를 가고, 이 때문에 해당 지역 물가가 올라가면서 저소득층은 그곳에 살 수 없게 된다. 불평등한 시스템 하에서 저소득층 가정은 자원 지원을 적게 받는 학교들만 있는 지역으로 몰리게 된다.

원래 우리의 목표는 모든 아이들이 꽃피우도록 돕는 것이 아니었던가? “교육적 우수성을 키우고 동일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증진한다.” 라는 미 교육부의 업무 목표를 보면 그런 것 같다. 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오레곤 주를 보자면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종 또는 소득에 따른 차별은 불법이지만 상층으로 이동하길 바라는 부모들은 자신의 아이들에게 최고를 주겠다는 구실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시스템을 조작하는 방법을 찾았다. 자기 가족에게 집중하도록 장려하는 기독교 문화에서 이런 관행은 상식이라는 이름으로 세례 받았다. 반면에 우리 지역사회 내에서의 공동의 선은 고통받고 있다. 미국



의 공립 학교는 끊임없이 소득과 인종으로 차별받고 분리되어 그 결과 우리 아이들에게 공평하게 자원이 분배되지 않고 있다.

공립학교의 영재교육은 이런 문제의 한 사례이다. 포틀랜드 교외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는 학생의 56%가 히스패닉계이고 20%가 백인이다. 학생의 94%가 무료 및 할인 급식 프로그램에 지원할 자격이 되는데, 이는 이들이 사실상 빈곤선에 근접하거나 그 이하라는 의미이다. 또한 이 학교 안에서는 놀랍게도 27개국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

약 500명 미만의 우리 학교에는 2%도 안 되는 단 8명의 아이만 영재 프로그램에 합격했는데, 이들 중 절반은 백인이다. 전반적으로 영재로 판명되는 아이들의 비율이 낮는데, 영재 프로그램 소장은 참여 학생들의 수에서 더 공정성을 추구하려 애쓰고 있지만 학교내의 인종 구성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 이유는 교사도 표준화된 검사도 다양한 영재아들, 특히 다른 문화나 인종 출신의 아이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반면, '최고' 학군에 있는 학교에서는 이 수치가 아주 다르다. 이 학군에 있는 한 초등학교는 88%가 백인이고 8% 미만의 학생들만 무료 및 할인 급식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전체 학생의 5%가 영재 프로그램에 등록했다. 이 학교는 백인이 더 많고 가난한 아이들이 적어서 더 똑똑할까?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것은 아닐까?

이런 종류의 격차는 나라 전체의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친다. 뉴욕 타임즈에서는 버지니아주

살러츠빌의 영재 프로그램을 다룬 적

이 있는데, 언론인들은 이런 영재

프로그램이 학교 시스템을 재분

리 하는데 이용된다고 주장한

다. 연방 자료에 따르면, 1984년

에는 살러츠빌의 백인학생 중

단 11%만이 영재로 판정 받았

다. 2003년에는 그 수가 백인학

생의 약 1/3로 증가했고, 현재 상

급과정에 있는 살러츠빌의 백인학

생 수는 흑인학생보다 6배나 더 많다.

이는 인종에 따른 차이가 어떻게 공

공 교육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보여주는 한 단면이

다. 1954년 브라운 대 교육 위원회 판결 이래로 백인 부

모들은 여러 방식으로 학교를 통합하는 흐름을 기피하

려 해 왔다. 슬프게도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립 기독교 학

교에 보내거나 홈스쿨링 운동으로 직접적으로 새로운 종

류의 분리 현상에 기여하고 있다. 이는 명백하게 인종 차

별적인 주장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개인 선택의 권리라는

개념에서 발현된다.

그러나 학교선택은 또한 평등의 수단이 된다. 니콜 베

**우리 지역의
학교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
하신 말씀을
반영한다.**



이커 풀햄이 자신의 저서 “모든 신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Educating All God’s Children”(한국어 미발간)에서 지적한 데로, 흑인 목사들은 늘어나는 라틴계 및 히스패닉계 성직자들과 함께 성적이 좋지 않은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대안으로 자체 학교를 설립하거나 차터스쿨(역사주: 미국의 교육시스템으로 대안학교의 성격을 지닌 공립 학교) 및 사립학교를 지원할 바우처를 요청하는 등의 방안을 추진해 왔다. 니콜 베이커의 관찰에 따르면 유색인종이 다수인 지역의 기독교인들은 학교 시스템의 정의를 위해 싸우는 반면, 모든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정의의 구현을 위한 대규모의 조직화된 운동은 전무하다.

이제 특권 계층에게만 큰 혜택을 주는 우선 순위로 학교를 선정하는 방식이 끼치는 영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때이다. 교육을 자유 시장주의 방식으로 접근하면서 지역 학교에서는 더 많은 저소득층 아이들이 몰리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이는 분명 교육 시스템을 재분리하는 행위이다.

기 독교인은 어떤 교육적 선택을 내려야 할까? 복잡하지만, 나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전하려 애썼던 내용을 생각해 본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갈 5:1, 13-14) 인

류애에 대한 날카로운 식견을 가진 관찰자인 바울은 자유의 매력이 때로는 우리 이웃에 대한 책임은 잊어버리고 우리 자신에게 최고인 것만 추구하는 이기적인 본성을 초래할 수 있다고 예견한 바 있다.

귀하고, 똑똑하고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우리 아이들을 외적 성공과 희박한 자원만을 좇는 세상에서 어떻게 사랑하고 가르칠 것인가? 이는 우리 가족에게 계속되는 질문이다. 나는 아직도 얼마나 쉽게 다른 아이들의 희생의 대가로 우리 아이에게 최고를 주려는 유혹에 빠져드는지를 깨닫고는 놀라곤 한다.

작년에 내 딸이 영재로 판정 받았지만,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이런 영재아동을 위해 제공하는 혜택이 많지 않다. 작년에는 일주일에 한번 선생님께서 점심을 포기하면서까지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올해는 회의도, 별도의 작업도 없이 모호한 추진계획만으로 딸아이에게 다양한 책을 읽도록 권하고 있다. 부모로서 나는 아이의 능력을 자극시키고 싶은 바람에 마음이 찢어지는 듯하지만, 한편으로는 서서히 내 동기와 공포에 대해 자문하고 있다. 적은 보수, 인원마저 부족한 학교에서 2%도 안 되는 아이들을 위해 추가 자원을 쓴다는 것은 비도덕적이거나 최소한 문제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다.

대신, 우리는 다른 부모 및 교사들과 힘을 합쳐 더 다양한 학생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자원을 구축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 도서 박람회도 다시 시작하고, 아이들을 모아 팀을 꾸려 지역 독서 프로그램에 참가하도



하는 선물을 받았다. (미국은 계속해서 다양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향후에는 소수집단에 속하는 것이 매우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일견 영재 학생들에게는 자원이나 경로가 부족해 보일 수 있겠지만, 우리 지역 학교에서는 훨씬 더 가치 있는 일, 피난처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는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들이 처한 상황에 상관없이 피난처로 공간을 제공한다. 처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나는 때로 이곳이 성스러운 공간처럼 느껴지곤 한다. 이곳은 아이의 민족, 사회경제적 지위, 인지 또는 신체 능력과 상관없이 어떤 아이든 환영을 받는 몇 안되는 곳이다. 이곳이 바로 사회에서 홀대하는 사람들을 귀하고 축복받은 사람들처럼 대하는 곳,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반영한 곳이다.

나는 '재능' 또는 '영재성'이란 말에 비추어 내 딸과 심지어 나를 반추해 보고, 이런 말로 인해 내가 어떻게 개인주의와 공포, 항상 최고를 원하는 상태를 지향하게 되는지 생각해 본다. 이는 바울이 말하는 교만하게 만드는 지식을 추구하는 것으로 이런 사고가 우리를 우리 이웃과 멀어지게 하고 불평등과 피해를 초래한다. 이것이 바로 내가 영재성을 불균형 발전-우리 정신의 일부 또는 사회 감정지능이 다른 부분보다 훨씬 더 빨리 발달하게 될 때-으로 이해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조하는 이유다. 우리 모두는 각자 더 성장할 필요가 있는 부분, 더 발달이 필요한 영역이 있다. 이웃을 사랑하여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사랑하게 되는 노력은 때로 두려움에 또는 이기심, 성공의 이상화 등으로 제대로 실천하지 못한다.

결국 나는 우리 사회의 기준으로 보면 내 딸에게 최고인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주님의 모든 아이들에게 최고인 것을 바라고, 그것이 바로 내가 우리 자신도 이를 지향하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이유이다. 또한 나는 고의로 홀대받아 왔던 곳에 자원을 더 투입하기를 바란다. 참교육은 항상 아주 바닥에서부터 시작해서 발달해 가는데, 이는 교육이란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받는 법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이다. ➔

록 하고, 다양성을 유쾌하게 즐길 수 있도록 학교 외부에 벽화를 그리게 하는 등 여러 활동을 추진 중이다. 최근에는 부모 리더십 모임을 만들어 다양한 배경의 부모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아이들의 능력을 자극하는 학업을 확대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을 요구한다. 이

와 더불어 인종, 사회경제적 통합이 지속적으로 보여준 것 같이, 우리는 학교가 지속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성공에 대한 열망이 우리 사회를 형성한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는 사실이다. 하지만 결과는 동일하다. 자원은 통합되고, 빼앗기고 분리된다.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시험 점수가 더 높은 학교를 더 선호하면서 빈곤율이

높은 학교는 버림받고 있고, 우리는 이런 현실에 일조하고 있다.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 아이들에게 '최고인 것을' 강조하고 싶은가? 아니면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라는 바울의 말을 그대로 믿을 것인가?

내 딸아이는 학교를 사랑한다. 내 아이의 깊은 존재를 드러내는 개성은 단순히 아이의 학급 친구들 (많은 아이들이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게 되는 난민이나 이민자 출신이다)이 아니라 교사, 직원, 부모, 지역 주민 등의 영향을 받으며 형성되고 있다. 나와 달리 내 딸아이는 종교, 문화, 인종, 학교 등에서 나타나는 실제 차이를 겪으며 항해하는 법을 알고 성장하고 있고, 소수집단에 속

**나는 쉽사리
다른 아이들을 희생
해서라도 내 아이에게
최선인 것을 원하는
심리상태로 빠져
든다.**



자녀를 위한 기도에 관해서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이 글은 루터교 목사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Johann Christoph Blumhardt, 1805~1880)가 영적인 싸움과 각성은 동 그리고 치유기적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경험하면서 얻은 통찰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글에서 블룸하르트는 방황하는 자녀를 걱정하는 부모들에게 조언을 합니다.

질문: 목사님,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세상적인 성공이나 성적을 위한 것도 아니고 자녀들의 구원과 신앙성장을 위한 기도인데도 말입니다.

대답: 이와 비슷한 질문을 여러 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앞서 말한 질문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대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가정은 언제나 타당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모든 것이 완벽히 충족되었다 하더라도 그런 가정은 기본적으로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도가 즉시 응답받지 못했다는 사실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았다는 증거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들이 교회에 더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그 기도가 바로 다음 주일부터 응답되리라고 기대해

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가 열매를 맺으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드러나지 않게 벌써부터 역사하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 자녀의 구원을 위한 기도는 위험이나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와 달리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없습니다. 치유 같은 경우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독자적으로 행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누군가 회심해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의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간 편에서도 요구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은 임의로 이리저리 조종 가능한 기계가 아닙니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어서 “난 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강제력을 사용하지 않길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자꾸 거역할수록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더욱 많은 준비를 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주 강한 욕구와 정욕, 어둠의 세력에 속박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런 속박이 하나하나 깨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 어떤 자녀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반감이 조금씩 커지면서 불신앙에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이런 반감이 사라지고 불신앙과 불경스러운 모든 것에서 영혼이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의 열매를 인간이 알아챌 수 있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많은 일을 하셔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어머니들은 기도를 올바르게만 한다면 그 즉시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준비작업이 마무리되는 데만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때때로 자녀에게 닥치는 고난은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혹 자녀 생전에 기도 응답이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임종 자리에서 구원받을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누군가 사랑으로 진심으로 꾸준히 기도하는 한 어느 누구도 버림받은 자로 여겨선 안 됩니다.

하지만 기도의 열매가 너무 없는 경우 기도하는 사람 편에 옳지 못한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종종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예배에 잘 참석하고 겉으로 나쁜 행동을 하지 않는 한 그걸로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런 부모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하나님과 참 교제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부모 자신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기도하면서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하는 이상한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헛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누

군가 기도하기 위해 나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심지어 부적절한 간구나 중보기도도 종종 큰 변화를 일으켜 영생을 주는 구원의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조차도 누군가 하지 않았다면 그런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기 위해선 시간이 필요하고 상황이 바뀌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기도는 매일 많은 말로 반복하는 것보다 잠잠히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말을 하는 기도는 하나님께 뭔가를 강요해서 정상적인 진행과정에 끼어들어 간섭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 봤자 헛되이 수고만 할 뿐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자신을 살피고 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도하는 대상에게 세심히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경솔하지 말아 고 어리석은 언행을 삼가고, 가혹하거나 엄격하지 말아야 합니다. 친절함과 관용 없이 가르치려는 태도는 오히려 일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태도가 가족을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기도하는 방법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성령이 지금보다 더 빨리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실 때가 곧 올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 직접 그분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족 때문에 상심하는 모든 영혼을 위로하고 인내와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맡겨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모든 것을 영광스러운 결말로 이끄실 것입니다. ➤

**기도는 매일 많은
말로 반복하는 것보다
잠잠히 마음에 품고
있을 때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문: 요한 크리스토프 블룸하르트, 중요 신앙문제 상담-Besprechung wichtiger Glaubensfragen aus der Seelsorge hervorgegangen (Karlsruhe: Evangelischer Schriftenverein für Baden, 1888)

편 지

클룸비아
구스타프 텐그렌의
빨간 모자 소녀

세상이 교실이란다

손녀에게 쓰는
편지

피다 마이어



사랑하는 낸시에게,

뉴욕 월튼에서
2018년 12월

할머니가 이제 팔십 줄에 들어섰다고 하는구나. 이쯤 되면 나이 좀 들었군 하는 소리를 들을 법도 한데, 나는 어찌 다른 점을 못 느끼겠어. 나이가 들어 몸이 안 움직이는 걸 부끄러워하지는 않으려고 해. 언젠가 많은 사람들 속에서 있는 너를 볼 기회가 있었단다. 이십 대를 갓 넘은 네 모습이 참 어른스럽더라.



사람들은 친절하게도 “이제 나이가 드시는 가봅니다.” 하고 너스레를 떨지만, 네 앞날을 생각하면 내가 정말 다 늙었지 싶다. 네가 대학을 졸업하는 날까지 살아 있으리란 법도 없으니 말이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너를 위해 할머니 생각을 적으려고 해. 편지가 두서 없더라도 늘 그랬듯이 이해해 주렴. 우리가 맺은 혈연 때문일까, 너희들에게 내 힘들었던 경험을 세대·공간·시간을 넘어 나눌 수 있으니

피다 마이어는 뉴욕주 월튼 팩스힐 브루더호프에 사는 교사다.



나도 동화 속 길동무들처럼 너와 함께 환희와 절망의 길을 걸어 왔다고 말하고 싶구나. 아, 네가 오해 받은 것 같다면 좌절할 때, 젊기에 불의라면 참지 못하며 예민해 할 때, 나는 그런 네 문제에 참견하지 않으려고 부쩍 애를 썼지. 이 할미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저 너의 시련에 동화 되는 것이요, 그 모든 혼란 속에 너의 영혼이 회복될 것이라 믿는 것이었다. 그리고 너의 그 소중한 정의감을 빈곤·편견·정치적 압박 속에서 고통받는 세상 사람들에게 펼치도록 돕는 것이었지. 나처럼 교사 생활을 했던 할아버지 안드레아스는 파라과이 정글에서 자라났어. 할아버지는 모든 학생들에게 가난하고, 위협에 처한 폭정에 시달리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심어 주려고 애썼단다.

할머니는 그동안 네 인격이 성장하고 자아를 발견하는 과정을 지켜봤어. 우리의 정체성은 종종 다른 사람들의 비판을 통해 위협을 받기도 하지. 그러나 완벽한 자기 관점이란 있을 수 없기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것을 자신을 향상하는 수단으로 봐야지 위협이나 파괴로 여겨서는 안 된다.

불투명한 미래를 앞두고 네 능력이 어떻게 쓰여질지 궁금할 거야. 미국에서 쭉 성장한 네가 이 할머니의 고향인 우루과이 몬테비데오에서 어려운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이 그저 놀랍기만 하구나. 네 공부를 통해 무엇을 읽을 수 있을지 생각을 해 보렴! 유창한 언어의 대가인 호르헤 루이스 보르헤스, 가브리엘 가르시아 마르케스의 《100년의 고독》, 세계 망명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과테말라의 줄리아 에스퀴벨의 시들을 원어로 읽을 수 있구나! 그리고 《모두 다 예쁜 말들》 등에서 대혹적으로 스페인 어구를 접목시킨 코맥 매카시와 같은 작가들을 제대로 즐길 수 있겠지.

그런데 이젠 단지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정체성에 관한 거야. 어떤 대학에 들어가든 복장부터 음악, 파티 등 그 환경에 걸맞게 순응하라는 압력이 혹독하지. 네 정체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그것이 소위 대중의 흐름을 거스르거나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될지라도 네 고유한 개성을 지키렴. 그리고 가능하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공통분모를 찾도록 노력하고. 네가 내면의 가치를 희생하지 않고서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해서 할머니는 참 기

참 신기하지만 하구나. 물론 내 얘기가 네 상황에 꼭 맞는 것은 아닐 테지만 한가닥 진리라도 건졌으면 좋겠다.

**영웅은
통큰 아랑과
선한 마음으로
상을 받게 돼**

나는 늘 이야기꾼 노릇을 해 왔어. 내 할머니를 닮은 것 같아. 이 할미는 동화의 가치를 굳건히 믿는단다. 그 이야기들은 대부분 선악의 싸움이고, 욕심과 야심에 빠져 돌덩이 같아진 인간 마음을 통찰하게 해 주지. 부유하고 똑똑하고 강한 사람이 무

지막지한 용을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도움의 손길을 받기도 하고 줄 수도 있는 정직한 사람이 어떤 어려움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런 가치를 찾는 것이 인생이야. 영웅은 통큰 아랑과 선한 마음으로 상을 받게 돼. 그런 상을 받으려면 비전이 필요하단다. 용감하게 발을 내디디며 어려움을 참을 줄도 알아야겠지. 그리고 목표를 도달하도록 도와준 분들을 평생 친구로 삼으면서.

빠. 그래, 네가 자라난 미국에 대한 비판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 미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이 다른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지 않더냐? 그러니 네가 진정으로 조국을 사랑한다면 멀리서 조망할 필요가 있단다. 그것이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네 마음을 든든하게 해 줄 거야. 친구이건 적이건 네 장점과 결점을 날카롭게 인식시켜 줄 수 있다는 걸 기억해. 네가 자라난 작은 공동체, 브루더 호프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겠지.

너는 이제 새 대륙에서 자신을 철저히 검증하게 될 거야.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에 대한 네 믿음이 지난 몇 년 동안 혹독한 시련을 맞았지? 이성은 믿음을 우리 머리 안에 끼워 맞추려 한다. 아!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작은 신이 되어 버리는 걸까? 사도 바울은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명쾌하게 정의 내렸어! 심지어 과학도 신비한 일 천지라 하지 않더냐? 꽃 한 송이를 분해한다고 치자. 그리고 각 부위마다 명칭을 부여한 후 다시 조합하면 정말 살아있는 식물이 될 수 있을까?

생화에 많은 부위가 있는 것처럼 너 또한 위대하고 신비한 전체의 일부란다. 그저 가족이나 공동체, 한 국가에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짜고 계신 인류라는 천의 한 부분이라는 거야. 구원이란 큰 그림 안에 너도 한 가닥이 되어 조화를 이루라고 부르심을 받은 거란다. 이 지구가 광대한 우주의 원래 목적으로 돌아가서 창조주를 다시 섬기고 공경하며, 깨진 관계를 회복하고 약하고 가난한 이들을 위기로 몰아넣는 불의한 사회를 바로잡는 것이 바로 구원이야. 환경문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지? 정말 해볼 만한 도전이지 않나? 네 능력 모두는 이 목표를 위해 쓰도록 해야지. 지성만이 아니라 존재 전체를 걸고 봉사해야 한다! 이 도전의 관문을 여는 열쇠는 복음서 안에 담겨 있어.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을 보렴. 이젠 하나님께서 오래 전부터 인간의 마음에 심으신 것이야.

네가 집에 돌아올 때까지 살아있으면 좋겠구나. 그러면 진정한 인생 수업이 시작될 텐데 말이다. 네 재능으로 자신을 표현하고 싶다고 했지? 너무나 자연스런 열망이야.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단다. 조화를 이루는 것이어야 한다! 어떤 직장을 갖더라도 네

가 추구하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 한 팀으로 일해야 될 거야. 그때 성격의 차이로 좌절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 특별히 다른 사람의 의견이 네 창조성을 제한하고 휘방한다고 느낄 때면 말이다. 그러나 갈등 속에서도 네 동료들의 눈을 바라보려고 노력하면 좋겠구나. 화해를 향해 네가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은 겸손함과 용기를 요하지. 조화를 이루라는 너의 부르심이 자아실현보다 더 고귀하다는 것을 기억하렴! 그리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길잡이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고 “의를 위하여 굶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같은 말씀이라는 것도. 실생활은 참 엉망진창일 때가 많아서, 때로는 네가 잘 계획한 것들을 희생할 경우가 생기지. 이때 겸손이라는 덕목을 찾으려 해라. 네가 좇는 목표가 자신을 만족시키는 것보다 더 위대하다는 걸 기억하렴.

물론 어떤 일이든, 심지어는 네가 애정을 갖고 하는 일이라도 지겹고 지칠 수 있어. 그렇다면 어떻게 네 정신을 생생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 네 동료와의 관계를 직장 밖에서도 여전히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구나. 단순히 너랑 맞는 동료만 찾지 말고, 그날 네 일에 대해 이질적인 반응을 보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렴. 그들은 인과 관계에 대한 네 지평을 넓힐 뿐만 아니라 네 확신을 명료하게 해 줄 거야. 무관심과 자기 몰두로 자기가 모르는 일들과 사람들을 혐오하는 태도는 참고치기 어려워. 젊은이들 사이에 그런 풍조가 만연하고 하는데, 다른 의견이 어디서 왔는지 이해하려고 노력해 봐. 간격을 좁히는데 도움이 되니까. 그리고 젊은 사람들만 사귀려 들지 말고 나이든 사람들도 만나 봐. 노인들도 네 멘토가 될 수 있단다. 친분이 깨질까 두려워 네 잘못을 지적 못하는 일은 없으니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독서의 중요성! 하루 중 시간을 아꼈다가 꼭 책을 읽으렴. 고등학교 다닐 적에 존 스타인벡의 《분노의 포도》, F. 스콧 피츠제럴드의 《위대한 개츠비》, 하임 포퓰의 “선택 받은 사람들 The Chosen”(한국어 미발간) 같은 위대한 미국 문학작품을 많이 읽었겠지? 내가 그 책들을 십대

독서의 중요성!
하루 중 시간을
아꼈다가 꼭 책
을 읽으렴.

에 읽었을 때는 무작정 줄거리와 내 수준을 넘는 등장인물들의 열정과 소동과 황홀경에 폭 빠졌었지. 그런데 어른이 되고 보니 그 작품들이 주는 교훈에 움찔 놀라기도 하고, 깊이 감동을 받게 되는구나. 그러니 더 깊고 넓게 책을 읽어라.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유언비어·선전구호·정보에 온 감각이 맹렬히 공격 당하고 있어. 그런 면에서 진정한 독서는 시간을 들여서인지 아주 다른 영향을 주지. 내면의 존재에 스며든다고나 할까? 나는 개인적으로 소설, 역사물을 좋아해. 예시바 대학의 철학교수이자 랍비인 샬롬 카르미는 이렇게 썼다.

“역사책들은 소설을 대체할 수 없다. 찰스 디킨스나 조지 엘리오트를 우리가 읽는 이유는 그들이 우리에게 비전과 통찰력을 주기 때문이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세상을 새롭고 놀라운 눈으로 보게 해주며 논픽션 작품에서 거의 볼 수 없는 전체 그림을 보여준다.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명료하게 할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유발하는 애매한 의도와 근거를 잘 드러내준다. 이 소설들은 우리에게 사회 과학자나 역사가, 저널리스트가 줄 수 없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다.”

만약 역사가 단지 사실들만 나열한 것이라면 인간의 영혼에 대해서는 눈감은 셈이지. 그러나 그 역사를 살아냈던 사람들의 눈으로 우리는 공통된 인류애를 복원할 수 있게 돼. 아래의 책들은 오늘까지도 내가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도록 도움을 줬단다. 앨런 페이턴의 《울어라 사랑하는 조국여여》, 줄리아 알바레스 작가의 “나비들의 시간 In the Time of the Butterflies”(한국어 미발간), 마커스 주사의 《책도둑》 같은 현대 작품들과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헤르만 윙크의 “전쟁의 바람 The Winds of War”(한국어 미발간) 같은 미국 고전이 있지. 나는 시련이 닥쳤을 때, 신의 도움을 기대할 수 없다면 인간적이라도 해결책을 간구하려는 긍정적인 결말을 좋아하는 편이야(그렇다고 해피엔딩일 필요는 없지만). 우리 모두 충돌이 생기면 어떤 구체책이라도 원하지 않나? 더욱이 개인의 문제라면. 그러나 공적인 것도 마찬가지겠지?

언젠가 너한테도 모든 것이 공허하고, 주어진 과제가

힘에 겨울 때가 올 거야. 이런 시간은 인생의 한 주기로 보면 된다. 그때는 잘 참아야 해. 하나님께서 다시 힘과 기



구스타프 클림트의 '계류의 성'

운을 주실 거라 믿으며 말아야. 언젠가는 네가 너무나 이해하기 어려운, 하나님께서 ‘안돼!’ 라고 막으시는 일이 닥칠 거야. 그때라도 네가 잘 받아낸다면 하나님께서 너를 향한 계획을 볼 수 있는 놀라운 혜안이 생길 거야. 한때 내게 큰 내적인 혼란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 그때 한 친구가 편지를 보내 주었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위에 돌무더기를 한 가득 부어놓은 것처럼 느껴질 때, 그 걸 방해물로 여기지 말고 일단 우리를 멈춰서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선의로 보라는 거야. 우리가 다시 되돌아가야 할지,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지 보게 하시려는 뜻이라는 거지.

여기에 생각 하나를 더해 볼게. 마치 영똥한 소리처럼

들릴 수도 있었지만 기대치 않은 기쁨이 올 수도 있으니 들어 봐. 네가 지금은 특별한 공부와 기술을 익히고 있지만, 공동체에 산다는 것은 너의 전문가적 기질만이 아니라 전 존재를 걸어야 한다는 걸 의미해. 예를 들어 볼까? 네가 나이 드신 노인 분을 돌보게 된다면 그분의 어려움이 너의 밝은 기운에 따라 나아질 수도 있다는 것이며, 아마도 이런 과정을 통해 너는 멘토를 얻는 덤이 생길 수도 있지. 또는 네가 하고 싶지 않은 것, 심지어는 네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을 수용하게 된다는 뜻일 수도 있어. 이런 결과로 정말 깜짝 놀라게 될 거야! 너도 알다시피, 할머니는 오랫동안 교사생활을 하지 않았나? 가르치는 일에 나는 모든 열정을 쏟았어. 한 아이가 장애물을 성공적으로 넘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내 인생의 큰 기쁨이었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정으로 직업을 바꿔야 했어. 옛날로 돌아가 혼란에 빠진 한 젊은 엄마를 상상해 보렴! 갑자기 재봉일을 하는 사람들을 돌보게 된 거야. 나는 재봉을 할 줄도 몰랐어. 아이들과 매일 지낼 수 없다는 것이 너무 싫어서 영영 울고 말았단다. 한편으로는 모두다 내가 얼마나 부적격한 사람임을 금방 알게 될 거라 굳게 믿었어.

**삶과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온 세계가
교실이나
마찬가지였단다.**

그런데 무슨 일이 생긴 줄 아 니? 나와 함께 일했던 여자분들은 나보다 나를 더 참아주는 인내의 장인들이었던 거야! 어쩔 수 없이 나도 기술을 한가지씩 익혀 나갔 지. 그때 익힌 기술로 내 나이 팔십 이 된 지금도 공동체 작업장에서 제작하는 훌륭한 가구의 덮개 봉 재를 하고 있지. (친구들이나 손주 들에게 손수 재봉해 만든 선물이나 장난감은 어쩔고!) 아직도 이렇게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만족스럽구나. 이렇게 타인이 보내는 신뢰를 너 역시 믿고 반응하면 기대치 못했던 재능을 발견할지도 몰라.

게다가 이 경험이 교사였던 내 경력의 종지부를 초래 했던 것은 아니야. 오히려 더 넓고 풍족해졌다고나 할까. 몇 십 년 동안 온갖 상황에서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스스로 멘토로 할머니로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이 내 인생의

큰 축복이 아닐 수 없구나. 신뢰는 당연히해서는 안될 가장 소중한 선물이야. 너같이 소중한 젊은이나 노인이나 상관없이 신뢰관계를 맺길 바란다.

네 할아버지 이야기 또 해야겠다. 나는 안드레아스로 부터 참 많은 것을 배웠거든. 할아버지의 공식 학력은 9학년뿐이지만 삶과 사람들을 너무나 사랑했기에 온 세계가 교실이나 마찬가지였단다. 네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길 바란다.

편지 한 통이라고 하기에는 참 긴 글이 되었구나. 자, 이제 그만 네가 제일 좋아하는 아름다운 몬테비데오 공원에 가서 책 하나를 펴고 예르바 마테 차를 마시렴. 이 할미를 생각하면서

너를 사랑하는 피다 할머니로부터

your fond Oma →



의 견

기독교인들은 공공학교를 버려야하는 걸까?

캐서린 맥닐

Cobis 사진, 퍼블릭 도메인

지난 9월, 첫 학기를 맞아 아이들을 근처 공립 학교로 보낼 무렵, 두 개의 기사를 읽게 되었다. 그 기사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을 공교육체제에 맡겨도 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지역 신문에 실려 있던 첫 번째 기사는 시카고 근방에 있는 학교들의 빈곤율을 다루고 있었다. 가장 크게 빈곤율이 증가했던 지역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학교가 있는 곳이었다. 해당 지역 76 퍼센트 이상의 학생들이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기에 많은 학생들이 배가 고프는 채 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그러한 아이들의 성적은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었다.

두 번째 기사는 남침례 신학교의 알 모홀러(Al Mohler) 총장이 기독교인 부모들에게 '계속해서 공교육

을 선택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진 것이었다. 모홀러 씨는 <앤서스 Answers> 잡지에 실은 글을 통해서 공교육과 관련된 여러 사상적 문제들을 다룬 후, 기독교적 세계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공교육과 관련된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는 기독교인 부모라면 공교육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분명 공립학교는 문제가 있는 곳이다. 여론 조사를 통해 많은 기독교인들이 모홀러씨의 주장에 동의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인터넷을 조금만 검색해 봐도 기독교인 자녀들을 공교육체제에서 빼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많은 글들을 찾아 볼 수 있다. 나와 같은 신앙과 비슷한 교육 수준을 갖고 계신 주변 분들도 자신의 아이들을 공립학교에 보낼 생각을 깊이 해보지 않았다고 이야기 한다. 따

캐서린 맥닐은 세 명의 아이들, 두 개의 직업 그리고 거대한 정원을 돌보면서도, 시카고와 근교 지방에 걸친 지역사회에 기반한 사역을 남편과 함께 담당하고 있다. 맥닐은 레드버드 작가 협의의 일원이기도 하다.

라서, 공교육 대신에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것은 아이들을 사립학교에 보내거나 가정에서 직접 홈스쿨링을 하는 것이다. 시간과 돈을 조금 더 투자해야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아이들을 일찍 하나님의 나라에 뿌리내릴 수 있을 것이라 여긴다.

하지만, 세상의 빛이 되는 그리스도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선택한다면 공립학교는 더욱 어두운 곳이 될 것이고, 그곳에 남겨진 아이들은 어떻게 될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다. 문제가 많은 공립학교를 포기하고 떠나는 것과 아니면 그곳에 함께 포함되어 가는 것 중 어느 것이 기독교인으로서 옳은 선택일까?

우리 가족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시카고 교외에 그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심을 깨닫고 이사를 오게 되었다. 다른 사람들처럼 우리도 좋은 거주지와 지역사회, 그리고 살기 안전한 곳을 원한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로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나타내는 빛과 소금이 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우 리 아이들을 빈곤하지만 다양한 인종이 공존하는 이 지역 공교육체제 안에 등록시킨 것은 삶의 큰 선택이었다. 이곳으로 이사오기 전, 우리는 꼭 해야 할 숙제처럼 생각하며 이 지역의 교육수준과 인구 분포율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공부하였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 지역의 가난함과 종종 발생하는 이민자들과 관련된 복잡한 문제들로 인해서 많은 걱정과 부담이 우리 안에 있었음을 보게 된다. 왜 그렇게 많은 가정들이 이러한 우려들이 있는 이 지역을 피해 더 좋은 곳을 찾고자 하는지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미국 시민권을 갖춘 1세대의 이민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든 살아보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하는 것을 볼 때에 백인 자녀들을 더 좋은 교육환경으로 보냄으로써 잃어버리게 될 교육적 혜택들이 떠오른다. 신실한 그리스도인 가정들이 공교육을 떠나게 되면서 그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과 재정, 믿음을 공립학교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공유

할 수 없음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온다. ‘그 지역으로 이사 가신다면 절대 아이들을 그 곳의 공립학교에는 보내지 마세요’ 라는 선의의 조언을 들을 때면, 마음 속에선 ‘하지만, 그곳이 바로 그리스도인 자녀들을 필요로 하는 곳인걸요’ 라고 외친다.

그렇지만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을 희생시켜 공립학교에 작은 선교사로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이들에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족과 교회들이 함께 공립학교에 영향을 끼쳐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 된 그리스도인들이 지역사회에 깊이 관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아이들과 지역사회를 두고 둘 중 하나를 선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하기를 힘쓰고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니라.” (렘 29:7) 라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선포한 것처럼 우리 아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다른 이들을 배려하며 다른 문화를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부모들과 교회가 함께 지역사회에 깊이 참여함으로 우리 아이들은 이러한 태도들을 공립학교 안에서 배울 수 있을 것이다.

현 재, 우리 사회의 빈곤율보다 공립학교의 빈곤율이 더 심각한 상황이다.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공립학교에서 빼낼수록 공립학교들은 그러한 가정들로부터 받던 힘과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되어 점점 가난해지고, 더 많은 가정이 학교를 떠나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학교를 떠날 만한 능력과 여건이 되지 않는 가정들만이 학교에 남게 되어 학교들은 지원이 끊긴 채 어려운 숙제들만 잔뜩 앉고 가게 된다. 우리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학교를 떠나는 대신에 함께 하는 선택을 하게 될 때, 우리는 공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학교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문제가 있는 학군 안에 있을지라도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소망과 정의, 구원을 실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의 소망과 정의, 구원을 실현하 는 것이다.

현하는 것이다. 우리가 공립학교를 선택하는 것은 별 생각 없이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공립학교에 더욱 마음을 쏟고 물질적으로도 도움을 주기 원

하기 때문이다. 우리 가정이 가진

것이 비록 작지만 조금이라도

우리가 사는 지역사회에 도

움을 줌으로써 이곳에 하나

님의 나라가 실현되길 원

한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가 아니다. 비록, 비관적인

통계수치와 아이들의 떨어

지는 성적이 우리 앞에 놓

여 있지만 주위를 둘러보면

변화를 위해 함께 일하는 헌신

적인 선생님들, 관리 책임자들 그

리고 부모들이 있다.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곳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섬기시기 위해 자신이 갖고 계신 특권을 내려놓으셨다. 자신의 손이 더럽혀지는 것을 상관하지 않으셨을 뿐 아니라 그 어떤 유혹이나 위험도 두려워하지 않으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면, 감내해야 할 부분을 따져보고 우리의 십자가를 짊어지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음으로 다른 이들을 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바꾸니 아래 감추어 두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두길 원하신다. 공립학교를 떠나버림으로 그리스도인들은 정작 빛을 가장 필요로 하는 곳을 어렵게 만들고, 우리의 집과 교회라는 보호막 아래 우리의 빛을 가두어 두었다. 존 퓨더(John Fuder)는 자신의 책, “이웃 알아가기 Neighborhood Mapping”(한국어 미발간)에서 교회는 지역 사회에서 진실되고 신뢰 있는 구성원이 되어 이웃들을 섬겨야 한다고 권면하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더 좋고 안전한 학교에 보내기 위해 ‘나쁜’ 학교에서 빼낼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모델로 삼아 우리

가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길 원하신다.’ 지금까지 교회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개개인의 선택이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직접 나서서 관여하지 않고 지켜만 봐왔다. 우리의 아이들과 보물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이다. 우리의 마음, 아이들 그리고 물질적 헌신이 우리의 이웃과 함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교훈은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을 갖고 있고, 우리 나라의 아이들은 위기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그러한 문제를 바로 바라보고 도망치기보다는 부딪치고 깊이 관여해야 한다. 우리 자녀들이 그리스도를 알도록 키울 뿐 아니라 이 지역사회에 구원과 평화를 구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도록 이끌어야 한다. 우리 아이들이 이 곳을 빛과 소금 그리고 새 생명으로 가득 채우도록, 산 위에 빛을 둘 수 있도록 키워야 한다. ➤

내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

페이즐리 힐레가이스트

아이들을 홈스쿨링 할 수 있어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은 자주 기존 학교들도 좋은데 왜 홈스쿨링을 하는지 묻곤 한다. 몇 가지 이유만 밝히자면 다음과 같다.

· 우선 홈스쿨링을 하면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아이들이 온전히 하루를 보내며 맞닥뜨리게 되는 영적인 문제들도 토론한다.

· 우리의 수업 시간표는 모든 아이들에 따라 개별화되어 있다. 아이들은 각자 매일 매일 일대일로 선생님과 수업을 받는다.

· 우리 아이들은 약물, 술, 무차별적인 성에 노출되지 않는다. 공공장소에서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에 대해 토론할 수 있다.

· 패거리 문화, 학교 폭력 등이 수반되는 학교 문화의 압력 밖에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가 가진 믿음에 대해서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다.

· 우리는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삶의 기술을 함께 배운다. 금전출납부의 잔액을 어떻게 맞출까? 빨래 짜는 법은? 요리나 제일 좋은 가격으로 물건을 사는 법은 무엇일까? 닭장을

만드는 법이나 칠면조를 잡는 법은? 이런 모든 것이 우리가 하는 수업의 일부다.

· 우리는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기독교적인 접근을 추구할 시간이 있다. 화해와 사랑은 우리 수업의 핵심이다. 개성이 최우선시 된다.

역사적으로 홈스쿨링은 표준이었다. 예수님도 주로 집에서 배우셨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도 집에서 배웠다. 사실 사람들이 공립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시작한 것은 겨우 지난 200년 쯤이었다. 우리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아주 짧은 기간에만 나에게 맡기신 것이다.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고 하셨다. 우리 아이들은 나라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의 것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역학교 시스템 내에 있는 아이들을 잊지 않고 굳이 지역사회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하지도 않는다. 우리는 가족으로 영화모임과 같은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다. 아이들과 나는 퇴직자 전용 아파트 거주민들을 대상으로 노래를

부르고 지역 내 푸드뱅크에서 음식을 나눠주는 일을 하고 있다. 홈스쿨링을 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이탈한다는 뜻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는 홈스쿨링 하면서 일정에 구애 없이 더 잘 봉사하고 있고 공립학교의 일정에 매달려 있었더라면 절대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깨닫는다.

나는 사역 및 봉사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학교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존경한다. 내 남편은 결혼 초창기에 LA 동부 바리오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가르쳤다. 우리는 갭단에 들어간 청소년들과 함께 일하고 전도하는 사역에 대한 열정을 함께 공유하게 되면서 만나게 되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각자의 길을 걷는다. 홈스쿨링으로 부름받은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하지만 내가 지역 사회에 할 수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선행은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대로 성장하도록 도우며 키우는 것이라고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홈스쿨링을 하는 이유다. ➤

페이즐리 힐레가이스트와 존 부부는 코네티컷에서 살며 9살, 11살, 14살 등 세 아이를 처음부터 홈스쿨링으로 키우고 있다.



파벨 쿠친스키, 열정

책 잘 읽는 사람

카렌 스왈로우 프라이어

책을 잘 읽는다는 것은 우선, 자세히 읽고, 본문과 문맥에 충실하며, 정확하고 통찰력 있게 해석하는 것을 말한다. 실제로 책을 읽는 행위 속에서 성품으로까지 발전하는 어떤 태도가 형성된다. 깊이 읽기(뉴스나 제품 사용설명서를 훑어보는 것과 대조적으로 문학작품을 읽을 때 하는 독서행위)에 필수적인 몰입에는 인내심이 있어야 한다. 또 해석하고 평가하는 기술에는 신중함이 필요하다. 심지어는 우리 주의를 끄는 관심거리들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책 읽을 시간

을 내는 간단한 결심에도 일종의 절제가 필요하다.

만약 당신이 나처럼 인터넷이 없던 시절에 오랫동안 살아보고 책을 읽은 경험이 있다면 지금 현재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훨씬 짧아졌을 것이고, 한 시간 이상 앞서 책 읽는 것도 어려울 것이다. 디지털 세계의 산만하고 파편적이고 중독적인 특성과 시도 때도 없이 올려대고 번쩍이는 기기들이 인간 정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자료가 있다. 니콜라스 카는 그의 책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 인터넷이 우리의 뇌 구조를 바꾸고



카렌 스왈로우 프라이어는 리버티 대학의 영어학 교수다. “책 잘 읽기: 좋은 책을 통해 훌륭한 삶 발견하기, On Reading Well: Finding the Good Life through Great Literature” (한국어 미발간)을 포함해 여러 책을 저술했는데 본문은 이 책에서 출판사 허락을 받고 발췌한 것이다.



파벨 쿠친스키, 눈사람

있다»에서 “간략하고 단편적이며 종종 겹쳐서 쏟아지는 정보를 더 신속하게 받아들이고 내보내야 하는 새로운 형태의 사고방식이 선형적 사고를 밀어내고 있다.”라고 말한다. 인간의 뇌는 읽기를 배울 때는 논리적이고 선형적 형태로 작동한다. 하지만 트윗에서 트윗으로, 사진에서 사진으로, 화면에서 화면으로 계속해서 옮겨 다닐 때는 이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한다. 몇몇 기업들이 인정했듯이, 뇌에 미치는 이런 영향은 기술 개발자들이 사용자

참여를 늘리려고 의도적으로 프로그램을 중독성 있게 만들면서 더욱 커진다. 여러분이 독서를 잘하는 능력을 잃었다고 느끼든지 아니면 아예 그런 능력을 가져본 적이 없다고 느끼든지 간에 낙심할 필요가 없다. 책을 잘 읽는 데는 결코 대단한 비법이 필요하지 않다. 책을 잘 읽는 것은 쉽지 않을지는 몰라도 간단하다. 시간과 집중력만 있으면 된다.

책 잘 읽기는 페이지의 단어를 이해하는 데서 시작한

폴란드 작가 파벨 쿠친스키는 포즈나인 미술아카데미에서 수학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풍자 화가이다. plough.com/surrealtimes에서 그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파벨 쿠친스키, 어른 아기

다. 30년 가까이 문학을 가르치면서 알게 된 것은, 학생들이 성급하게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서 기본적인면서도 필수적으로 단어의 실제적 의미를 파악하는 작업을 종종 건너뛴다는 사실이다. 이런 사고 습관은 행동으로도 나타난다. 학생들에게 한 문장이나 단락을 서술하거나 다시 말해보라고 하면 대개 학생들은 실제로 답이 있는 눈앞의 페이지를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머릿속에서 생각이나 개념을 더듬어 찾듯이 고개를 들어 위를 쳐다본다. 페이지의 단어에 집중하려면 깊이 사고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은 연습할수록 좋아진다.

연 습이 완벽함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연습이 즐겁다면 더 쉬울 것이기에 재미있는 책을 읽어야 한다. 만약 지금 책이 읽기에 너무 괴롭다면 재미있는 책을 골라라. 인생은 너무 짧고 책은 충분하다. 게다가 책 읽기가 즐겁지 않다면 책을 잘 읽을 수 없다.

그렇더라도 가장 큰 즐거움은 시간과 노력을 들였을 때 오는 법이다. 힘들이지 않고 읽은 책은 TV 시트콤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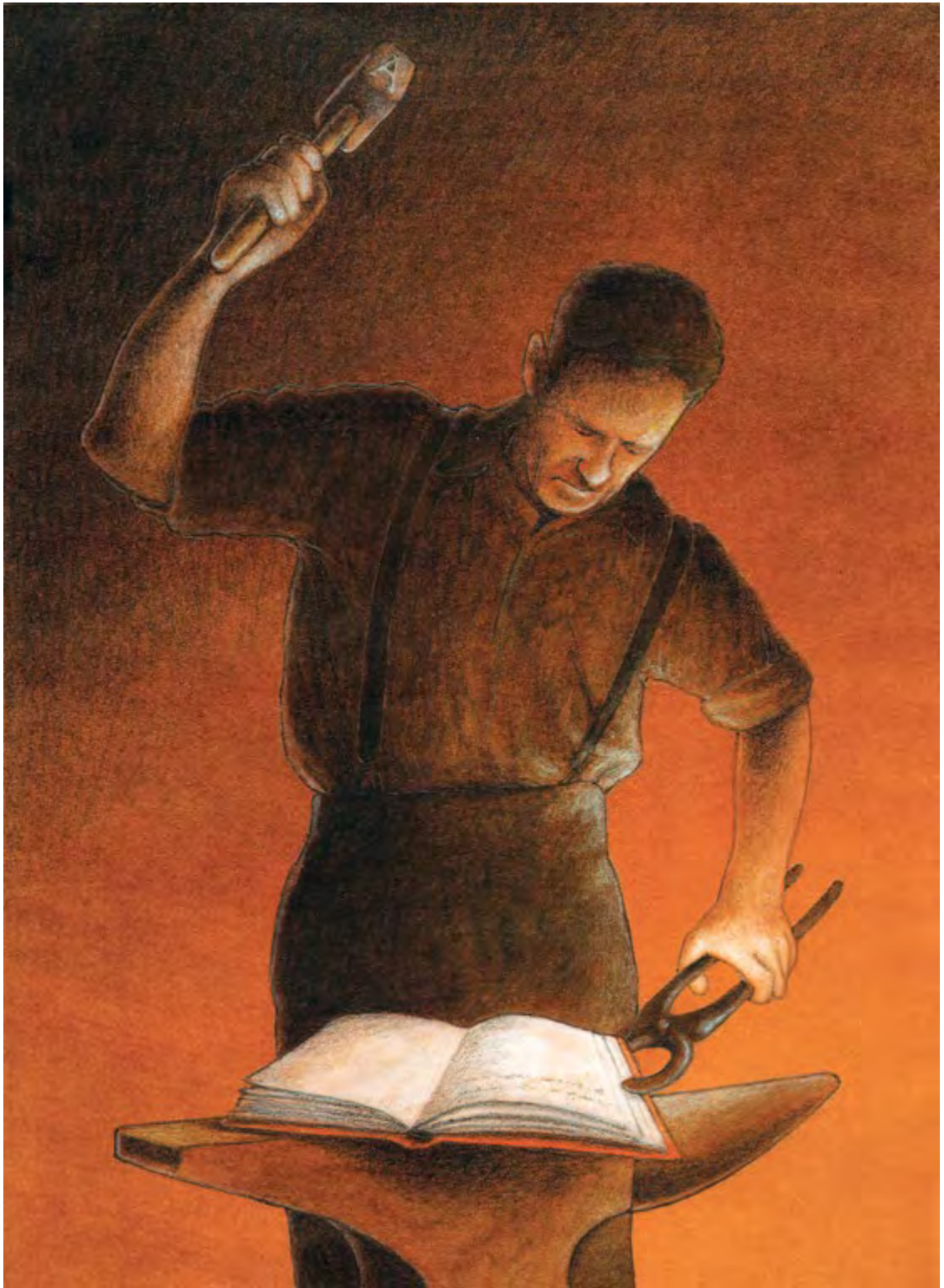


파벨 쿠친스키, TV와 책

보고 느끼는 정도의 기본전환이 될 뿐, 책을 덮고 한참이 지나서까지 지적, 심미적 또는 영적인 보상을 얻기는 힘들 것이다. 그러므로 재미있는 책을 찾더라도 노력 없이는 읽을 수 없는 책을 골라라. 문장이 정교해서 여러 번 읽어야 하고, 익숙한 단어도 참신한 방식으로 사용되고, 새로운 단어는 사전을 찾아봐야만 할 정도로 암시적으로 사용되고, 이미지와 개념들이 너무 흥미롭게 표현되어서 며칠간 머릿속을 맴도는 그런 책 말이다.

또 한 가지, 천천히 읽어라. 훌륭한 음식을 음미하듯

이 좋은 책도 느긋하게 즐겨야지 서둘러 끝내선 안 된다. 빨리 읽어야 하는 읽을거리도 분명히 있지만, 습관적으로 대충 훑어보는 것은 패스트푸드를 계속해서 먹는 것이 몸에 영향을 주듯이 정신에 나쁜 영향을 준다. 빨리 읽기는 깊이 읽기에 비해 저급할 뿐만 아니라 득보다 해가 더 많다. 한 비평가가 경고하듯이 빨리 읽기는 단순히 “당신이 뭔가를 배우고 있다고 착각하게끔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책을 빨리 읽으면 비판적으로 사고하지 않게 되고 문맥도 놓치게 된다. 더 나쁘게는 “책을 빨리 읽으



파벨 쿠친스키, 대장장이



파벨 쿠친스키, 진주

면 피상적 지식과 자기 과신이라는 서로 만나선 안 되는 두 가지 태도가 생기게 된다.” 당신이 책을 천천히 읽는 편이라면 실망하지 마라. 책 내용과 깊이 씨름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가장 느리게 읽는 사람이 가장 책을 잘 읽는 사람이다. 책에서 최대한 의미를 끄집어내고 가장 깊이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17세기 청교도 신학자인 리처드 벅스터는 말한다. “사람을 현명하고 훌륭하게 만드는 것은 많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단 몇 권의 책이라도 최고

의 책을 잘 읽는 것이다.”

책을 읽을 때 펜이나 형광펜을 가지고 줄을 긋거나 메모를 해라. 책에 메모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초등학교에서 배운 잘못된 견해이며, 책의 가치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한 낭설이다. 책의 참된 가치는 깨끗한 페이지가 아니라 책 속에 들어있는 글과 사상에 있다. ➤



펜과 키보드

마크 바우러라인

인터넷 검색창에 “펠리칸 만년필 1950년대 제품”이라고 쳐보라. 그러면 시판 중인 수십 종의 빈티지한 제품 사진들이 나올 것이다. 저렴한 가격은 50달러 이하로도 금촉 만년필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하나 장만하러 매장에 나가 봐요”라고 우리 반 학생들과 내 강연을 듣는 10대와 20대 수강생들에게 권장하곤 한다. “크리스마스나 졸업 선물로 구형 만년필 하나 사달라고 부모님께 말해 보세요.”

내가 펜을 손에 쥐고 있으면 학생들은 약간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즐거워하면서 쳐다본다. 자기 자신을 위해 괜찮은 펜 하나 정도 장만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겠느냐고 격려하면, 그들은 처음엔 약간 놀란 듯 바라보다가 이내 펜에 흥미를 보이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어느 누구로부터도 그런 제안을 받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을 받았을 때 그들은 생각에 잠기게 된다. 이것은 마치 새로운 성격적 특성이 그들을 사로잡아, 새롭고 더욱 폭넓은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숙고해 보게 만드는 것이라. 나만의 멋진 펜이라..

미국의 젊은 친구들은 디지털 신제품에 깊이 빠져 있기 때문에 유행에 뒤떨어진 도구는 또래압력(peer pressure: 십대 청소년들이 또래들과 어울리면서 느끼는 문화적 압력)에는 전혀 생소한 것으로 다가온다. 청년 문화는 전자제품에 대해 호기심이 발동해 즉각적으로 시선을 빼앗기고 만다. 하지만 비록 그전까지는 단 한 번도 자기만의 필기도구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던 청년들이라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아 그것을 좋아할 것이다. 고전적인 펜은 단순히 필기도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유행의 첨단을 견고한 밀레니얼 세대(1980년~2000년대 출생한 사람-역자주)에게는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이유는 간단하다. 당신이 소장하고 있는 펜으로 할 수 있는 행위들 중 한가지인 서명에 대해 생각해 보자. 펜을 들고 서명을 하는 것이다. 서명이란 아주 특별한 행위이다. 왜냐하면 서명은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존재임을 확인시켜 준다. 사실 서명은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자신을 나타내는 독특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서명이란 전적으로 개인적인 행위이다. 서명을 한다는 것은 당신 자신을 표현하는 일이다. 어느 누구도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없다. 오직 당신이 서명을 할 수 있다. 또한 실제로 당신의 서명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된다.

펜과 키보드에는 현격한 차이가 존재한다. 열 명이 화면에 어떤 문장을 타이핑할 때, 그들은 모두 똑같은 글씨체를 만들어 낸다. 반면 그들이 펜으로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글씨를 쓰는 사람은 저마다 다양한 재료를 사용하곤 한다. 모든 손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이듯, 마찬가지로 개개인의 손 글씨도 그러하다. 스무 살 먹은 친구가 키보드를 내려놓고 만년필을 잡을 때, 차별성이 두드러진다. 컴퓨터 키보드는 사용자인 사람들을 ‘기술적으로 혁신’시킨다. 컴퓨터 타이핑은 동일한 활자를 양산해 내기 때문이다. 반면 펜은 사람들을 독특한 존재로 만들어 준다. 우리는 펜을 이용해 유일무이한 필체를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따라서 손 글씨의 가치를 장식품 정도로 축소시키지는 말았으면 한다. 노트북을 덮고, 밀레니얼 세대에게 몽블랑 만년필이나 파카 또는 비스콘티 만년필을 건네 줘보라. 그 펜을 받은 사람은 손으로 글씨를 쓰는 행위가 얼마나 소중한

**글씨 쓰기의
낮설음은
유익한
면이 있다.**

만년필 사진 Gajus/Stock

마크 바우러라인은 기독교 잡지 First Thing의 책임 편집자이며 에모리 대학 영문과 교수이고, 미국의 국립예술기금에서 일했다.

한지를 깨닫게 될 것이다. 펜을 손에 쥐고는 아주 진지하게 단어들을 적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적은 단어들은 그만의 작품이 될 것이다. 그 사람만이 그 단어들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다. 하지만 컴퓨터를 가지고는 이 일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펜은 글씨를 쓰는 사람의 감각기관의 연장이라 할 수 있겠다. 손에 펜을 쥐는 순간 - 특히 대량생산된 펜이 아니라면 -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표현하고 싶은 부담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그가 쓴 손 글씨는 그만의 글쓰기를 고양시킨다. 펠리칸 만년필로 뻥한 글을 쓰는 일은 매킨토시 컴퓨터로 쓰는 것보다 어렵다.

물론 21세기에 살고 있는 젊은 친구들은 필기를 거추장스런 과정으로 보고 있으며 학교도 그러한 태도를 지지하고 있는 현실이다. 필기 교육은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사라져 갔다. 이제는 대학생들이 시험답안지를 제출할 때 교사들은 그들이 제출한 끼적거린 낙서를 해독하려고 고생 깨나 해야 한다.

하지만 글씨 쓰기의 낯설음은 유익한 면이 있다. 글씨 쓰기의 비효율성은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영어 선생님들은 바로 그러한 방식을 원한다. 젊은 사람들은 컴퓨터 키보드로 모든 일을 수행한다. 컴퓨터로 글을 쓰는 행위는 그 시대의 의사 소통방식과 자신들이 보내는 메시지들을 혼합하는 일이다. 반면 손으로 글을 쓸 때는 방해 세력들을 차단한 채 꾸준히 노력해야 하고 습관적인 표현을 만들어 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로 글을 쓰게 되면 학생들은 계속해서 이메일이나 새로운 문자 메시지 도착 알림 등으로 집중하는데 방해받을 것이다. 우리의 주위를 산만하게 하는 그와 같은 요소들은 문장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렇게 되면 단 한 페이지도 써 내려가기 어렵다. 학생들 손에 전자장비가 없을 때 글쓰기 실력은 향상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나는 학생들에게 펜을 하나 장만하라고 강력하게 권한다. 그것도 다른 사람들이 소장하고 있는 것과 다른 구형 펜을 추천한다. 대다수 학생들은 글쓰기 능력에 대해 자신감이 결여된 채 대학에 진학한다. 그리고 신입생 시절의 작문은 대학생활에서 가장 끔찍하고 혐오할 만한 과정으로 다가온다. 학생들은 차라리 비즈니스와 의과 예비과정, 심리학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지 지긋지긋한 글을 계속해서 써내려가는 일을 원치 않

는다. 그들은 자신들이 그 일을 제대로 수행해 내지 못할 것을 알고 있다(미국의 수험 기관인 ACT에 따르면, 입학생 중 오직 61%만이 신입생 영어 수업을 위한 '준비된 학생'이라고 한다). 논문 과제는 학생들을 불안하게 하고, 그들은 다음과 같은 통상적인 대처 전술을 차용한다. 그들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웹사이트를 뒤적이다. 예를 들어 에밀리 디킨슨의 시 해석을 제공하는 웹페이지를 살펴보고, 과제 마감 전날 밤까지 미루고 또 미룬다. 그러다 마감일이 다가와서야 노트북을 열고 최대한 빨리 문장을 쿵쿵 내리치기 시작한다. 글쓰기 과정을 세심하게, 찬찬히, 그리고 풍부하게 표현하지 않는 어떠한 행동도 매우 불쾌한 일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글씨 쓰기는 또 다른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이 행위는 학생들로 하여금 기계적 절차를 넘어서 창조적이고도 독특한 과정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그들은 손에 들린 펜으로 무미건조한 글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할 것이다. 사실 그들은 모두 최신 아이폰을 원하고 있다. 그들이 다니고 있는 대학들은 최첨단 기술을 자랑스레 떠든다. 그러나 그 도구들은 대량생산된 제품들이다. 아이폰이나 태블릿을 소장한 아이들은 손에 넣는 즉시 자신들 방식대로 꾸미기 시작한다. 쇼핑몰에 가서 휘황찬란한 색상의 휴대폰 케이스를 전시해 놓은 매장을 둘러보라. 그들은 자신들의 개성에 맞는 장비를 갖추기를 원하고 있다. 디지털 세대가 젊은이들의 존재감을 증폭해 주겠다고 약속한다. 유튜브의 원래 모토는 "너 자신을 방송하라 Broadcast Yourself"였다. 하지만 사실 그것은 동일한 장비를 소유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사이버 공간에서 서로를 공명시켜 줄 뿐이다.

6년 된 파커 듀오폴드를 소장한 한 젊은이는 디지털 경쟁에 참여하는 대신 호주머니에서 만년필을 꺼내 뚜껑을 열고 노트를 펼쳐 무언가를 끄적거리기 시작한다. 그 모습은 품위 있으면서도, 그 자체로 즐겁다. 무엇보다 글쓰기를 가르치는 우리를 위해서, 직장에서 형편없는 무미건조한 글을 읽고 불평하는 고용주를 위해서도, 글쓰기는 젊은이들에게 질적으로 더 나은 문장, 더 나은 글을 쓸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





캔실드와 엠마누엘

어디까지 용서할 수 있을까?

드니스 위마나

드니스 위마나는 1994년 르완다 대학살에서 남편을 잃었다. 그녀와 세 살배기 아들은 이웃집 후투족이 숨겨 준 덕분에 목숨을 구할 수 있었다. 쟁기 출판사는 올 4월 르완다 대학살 25주기를 맞이하여 드니스의 이야기를 담은 책 “붉은 대지로부터: 한 르완다 여인의 치유와 용서 From Red Earth: A Rwandan Story of Healing and Forgiveness”를 출간할 예정이다(한국어 미발간). 다음 이야기는 그 책의 일부 내용이다.

글쓴이,
캔실드,
그리고
엠마누엘

2015년 나는 르완다 대학살 희생자들을 기리는 연례 추모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죽은 남편의 고향인 무코마를 방문했다. 행사에서 할 인사말을 생각하는 가운데 대학살 사건도 21년이 지났고 현재 평화의 분위기도 무르익어 가는 시점에서 이번 행사가 용서에 관해 말할 좋은 기회라는 확신이 불쑥 들었다.

그런 확신에도 불구하고 막상 오백 명가량 되는 사람들 앞에 나설 때가 되자 한편으로는 이들이 정말 준비가 되어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었다. “혹 여러분 중에 용서를 해보신 분 계신가요?” 그러자 놀랍게도 적어도 10명 이상 손을 번쩍 들며 외쳤다. “저요!” “저도요!”

그 중 한 명이 캔실드였다. 그날 집을 비운 아들 하나와 딸 하나를 빼고 남편과 자녀 다섯 명을 잃은 사연을 다들 알고 있었다. 캔실드가 말을 하려고 일어나자 다들 그녀를 바라보았다. “1994년 4월 9일, 인테라하르웨족 사람 여럿이 집으로 들이닥치자 식구들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인테라하르웨는 대학살을 주도한 후투족 무장 민병대였다.

캔실드는 잠시 숨을 고르고는 말을 이어갔다. “엠마누엘이라는 이웃집 청년이 남편과 다섯 명의 아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체포되어 감옥에 갇습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12년에 석방되었습니다. 엠마누엘은 교도소에서 나오는 그 길로 먼저 우리 집에 들러서 용서

를 구하려고 했지만, 마을 사람들이 반대 시위를 하는 바람에 그날에는 올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우리 집 문 앞에 나타나 용서를 구하며 말했습니다. 캔실드는 다시 한 번 말을 멈추더니 차분한 목소리로 말을 마무리했다.

“전 이전부터 조금씩 증오심에서 자유로워지고 있습니다. 남편을 잃은 미망인들이 함께 복음서를 읽고 고 있었는데 거기 말씀들이 제가 용서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던 거죠”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4 개월 후에 무코마를 다시 방문했을 때 캔실드가 찾아왔다. 그녀 옆에 한 남자가 말없이 따라왔다. “다시 만나 반가워요, 드니스. 이 사람이 바로 엠마누엘이에요.”

엠마누엘이 십 대였던 1994년 라디오에서는 투치족 몰살을 촉구하는 방송이 연일 들려왔다. 멀리서 날아오는 연기 냄새를 맡으며 알 수 없는 흥분이 치솟는 걸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인테라하르웨가 바나나 이파리를 머리에 쓰고 무코마에 들이닥쳐 사람들을 선동했고, 엠마누엘은 잠시도 주저하지 않고 동참했다. 투치족

을 몰살하자는 광기의 노래 ‘투자 바첵베 쉼베’에 피가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축구장의 열광적인 분위기보다 훨씬 재미있다고 생각했다. 더는 구경꾼 아니라 직접 뭔가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죽이지 않는 녀석은 남자가 아니다!” 주동자가 무리를 선동했다. “자 이제 끝장을 내자. 뱀들을 모조리 살육하라! 그리고 어린 독사들도 어른 독사 못지않게 위험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들은 그렇게 격앙된 노래를 부르며 마을로 우르르 몰려갔다. 엠마누엘도 정글에서 사용하는 칼인 마체테를 움켜잡고 그 틈에 끼어들었다. 그리고 남자다움을 증명하고 싶은 의욕에 넘쳐 캔실드의 집으로 쳐들어갔다.

이듬해 정권이 바뀌어 온 나라를 휩쓸던 살인의 광기도 사라졌고 엠마누엘은 체포되었다. 감옥 속에서야 그는 현실을 직시하게 되었다. 한 해 한 해 비좁고 악취 나는 감방에서 자기가 죽인 아이들 얼굴이 자꾸만 어른거렸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을 생각할 때마다 몸서리를 쳤다. ‘내가 뒤에 흘려서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지?’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워 지옥도 이보다 끔찍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 2000년 6월 엠마누엘은 자신의 범죄를 자백했다. 그리고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붉은 대지로부터

한 르완다 여인의 치유와 용서 (드니스 위마나, 한국어 미발간)

드니스 위마나

2019년 4월 영문판 발행 예정 · 220 쪽 · Plough 발행

이 이야기가 대학살 생존자가 오랜 시간에 걸쳐 힘겹게 치유를 발견해가는 유일한 체험담이라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충분히 놀라운 일이다. 하지만 드니스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안정된 직업도 뒤로한 채 대학살 미망인들 모임을 조직해서 서로 사연도 나누고 치유를 경험하며 새로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면서 조국 르완다를 재건하는 일에 남은 생애를 헌신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사역 속에서 드니스가 알게 된 사연들을 모은 것이다. 이 이야기들을 읽어 가다 보면 진실을 말함으로써 삶을 회복하고, 관계를 화해하는 일들이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고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것은 아마도 르완다에 오랫동안 남겨질 과제일지 모른다.

플라우 웹사이트에서 책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www.plough.com/fromreearth

당 시 사법 제도로는 130,000건의 대학살 관련 기소를 처리할 수가 없었다. 무엇보다 판사와 변호사들 대다수가 죽거나 도피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02년 새 정부는 전국에 가차차라는 재판소를 설치했다. 이 재판소는 전통적인 사법 제도를 근간으로 각 마을에서 신망받는 남녀를 재판관으로 세워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였다.

마을 사람들이 매주 한 곳에 모여 마을의 사건을 남김없이 처리했다. 참석자는 누구나 감옥에서 이송된 피고인을 심문할 수 있었다. 재판관은 쌍방의 진술을 듣고 난 후에 판결을 내렸고 피고인이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는 경우에는 감형을 허가할 수 있었다. 어떤 죄수들은 낮 동안 마을 재건 노역에 동원되었다.

이런 재판 과정에서 온 나라가 충격과 고통에 빠졌다. 생존자들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족들이 살해당했던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들으면서 아픈 상처를 후벼 파는 고통을 느꼈다. 살인자들은 분홍색 죄수복을 입은 채 많은 사람 앞에서 범행 자백하는 걸 수치스럽게 여겼고, 그걸 보는 죄수 가족들도 마찬가지였다.

이런 재판 과정이 고통스럽긴 했지만 어떤 피해자와 가해자들에게는 이를 통해 치유가 시작되기도 했다. 가차차 법정 자백 덕에 많은 생존자들이 친족들의 유해를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었고, 어떤 살인자들은 잘못을 인정하고 나서 죄책감에서 많이 벗어날 수 있었다.

2003년 캔실드는 가족을 죽인 살인자를 마주한다는 생각에 몸서리쳤다. 하지만 가차차 법정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했다. 또 두렵긴 했지만 남편과 아이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진실을 알아야 했기에 내키지 않았지만 가차차가 열리는 키 큰 나무 그늘 아래의 공터로 갔다.

엠마누엘은 진술 차례가 되자 고개를 떨군 채 사람들 앞에 섰다. 엠마누엘은 무코마 참극이 시작된 날에 다섯 명의 무장 폭도들과 함께 저지른 끔찍한 짓을 힘겹게 진술했다.

“다른 다섯 명이 피해가족이 도망치지 못하게 막으면서 저를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살인을 실제로 저지른 것은 바로 저였습니다.” 엠마누엘은 식은땀을 흘리며 당시 상황을 하나하나 설명하면서 몸을 떨떨 떨고 있었다. “인테라하르웨는 이 가족을 죽인 보상으로 제

게 그 집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걸 뜯어다 제집을 짓고 거기서 1995년 체포될 때까지 살았습니다.”

엠마누엘은 다소 흥분한 얼굴로 고개를 들어 굳은 표정의 사람들을 이리저리 둘러보더니 울부짖었다. “하나님과 정부와 마을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캔실드는 엠마누엘이 진술하는 걸 들으며 오열했다. 그렇지만 그가 비통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죄를 인정하는 것을 보면서 똑같은 고통을 느꼈고 연민마저 느껴졌다. 그 후로도 엠마누엘의 일그러진 표정이 뇌리에 깊이 새겨졌다.

가차차 재판장은 엠마누엘에게 25년 징역형을 선고했다. 그리고 17년 복역 후 모범수로 출소했고, 그날 곧장 캔실드의 집으로 찾아간 거였다.

캔실드가 문을 열자 거기에 남편과 아이들을 죽인 살인자가 눈앞에 서 있었다. 엠마누엘은 눈물을 글썽이며 몇 번이고 용서를 구했다. 그리고 캔실드가 말했다.

“그래요, 당신을 용서할게요.”

그 리고 지금 2015년 8월, 나는 두 사람과 같이 길에 서 있다. 이제까지 땅만 바라보던 엠마누엘이 내 눈을 쳐다보았다.

“캔실드는 제게 엄마 같은 분이세요.” 엠마누엘은 나지막이 말했다. “조언이 필요할 때마다 찾아가죠. 결혼하기 전에도 함께 많은 것을 상의했습니다. 캔실드는 제 결혼을 허가한 지역 공무원이기도 합니다.”

캔실드가 중간에 끼어들었다. “저도 집을 수리할 일이 있을 때 엠마누엘에게 도와 달라고 하면 언제든지 찾아와 창문을 갈아주고 지붕도 고쳐 준답니다. 또 소에게 문제가 생겨도 엠마누엘을 찾아가죠. 그리고 우리 집에서 아무 때나 와서 부담 없이 함께 식사하는 사이랍니다. 제 아들이나 다름없어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았다. 엠마누엘은 수줍게 웃고 있었다. ➤



북한 어린이 집의 아이들

평양의 아이들

스티븐 윤

스티븐 윤은 한국계 미국인이며 의사로서 지난 10년간 북한 평양에서 장애아동들을 돌보는 일을 해 왔다. 작년까지 평양에서 아내 조이 그리고 세 자녀와 함께 살았고, 가족 모두 이그니스(IGNIS) 공동체의 멤버들이다. 현재는 미국 정부의 제재 조치로 가족이 다 함께 다시 평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처지이다.

쟁기: 북한으로 가게 된 첫 계기는 무엇이었나요?

스티븐 윤: 2006년에 한 교회 행사에 참여했는데 거기서 북한에서 사역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1994년 대기근이 남긴 참사를 목격했는데, 당시 3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사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비록 세계 각국에서 구호 물자들이 도착했지만, 그분은 “만약 예수님이라면 단지 구호식량만 보내셨을까? 본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았을까?” 라고 질문하며 예수님이라면 직접 사람들에게 가서 고통을 함께 나누며 사

랑을 나누어 주실 것이라 확신했죠.

그 모임에서 크게 감동을 받았고 후에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당시만 해도 우린 그냥 캘리포니아에 사는 평범한 가정이었습니다. 아내는 “우리 짐 싸서 당장 가요!”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가셨군요.

예. 2007년에 중국과 러시아 국경에 있는 일종의 실험적 자유무역지대인 나진으로 갔습니다. 거기의 한 병원에서 일을

소아마비를 앓는 아이와 함께



했죠. 그때 당시 북한에서 외국인들의 생활은 극히 제한되어 있고 당국 관료와 많은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상의 어려움은 없었나요?

외국인이고 미국 시민이니까 당국의 동행 없이는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었지요. 우리 이그니스 공동체는 평양에 모두 여덟 명의 멤버가 있었는데 자동차 한 대를 사용했고 관료 한 사람이 늘 함께 다녔기 때문에 하루 일과를 조정하는 데 무척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거처가 부족했기 때문에 우리 멤버들은 모두 한 집에서 생활했어요. 이런 상황이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그런 제약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놀라울 정도로 많았어요. 우리들의 일상은 지역 병원에서 일반 주민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환자들을 돌보았고 동시에 의사들을 훈련했습니다. 허가를 받을 시간만

충분하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아주 많았습니다.

어떻게 북한에서 공동체를 하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아내 조이와 제가 예수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데, 그곳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갖가지 문제들을 안고 함께 살아가는 것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문제들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희망이 생겼어요. 거기에 영감을 받아 우리의 사역에 이그니스(라틴어로 불씨라는 뜻) 공동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현재 공동체에는 마흔 명의 사람들이 북한 내에서 여러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중의 대다수는 정회원이고 어떤 이들은 일년 또는 반년의 인턴십을 지내면서 저희의 사역을 돕고 있습니다. 이들은 여러 나라에서 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료진으로, 어떤 이들은 어린이 지원 사역, 또 어떤 이들은 사회적 기업 일을 합니다. 저희는 시작부터 북한 분들에게 기독교인으로서 북한을 도우려 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몇 년 전에는 비록 짧은 기간이었지만 저희 동역자 중에 한 분이 심장마비로 돌아가시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신장암에 걸려 큰 수술 후 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지요. 감사하게도 아내의 몸은 회복되었지만 제겐 굉장히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깨달았지요. 일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나와 그리고 함께 사역하는 많은 분들의 삶도 아주 중요한 사역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임을 세상이 알게 될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서로를 형제와 자매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배우게 된 것이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되었지요. 제 주된 사명은 이렇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신앙이 소명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한국에서 학교를 다닐 때 제가 공부를 잘 못하는 편이었



평양의과
대학의
의사들을
지도하는
스티븐 윤

어요. 비록 의사가 되어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지만 거의 불가능했지요. 하지만 저는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었고, 믿음은 그걸 가능케 했습니다. 나진에 살고 있던 사지마비 어린이 환자가 있었어요. 이 환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치료하기 시작했는데요, 환자 아이가 많이 회복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 후에 수많은 “난치병” 환자분들이 저를 찾아오셨지요.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내 능력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지요.

어떻게 뇌성마비 장애인들과 자폐증 환자들을 돕게 되셨나요?

2011년에 외국인으로서는 처음으로 평양의대에서 재활의학과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1월에 나진 시에서 5살짜리 뇌성마비 여아 환자를 진료하게

되었습니다. 복신이는 사지마비에 음식을 삼킬 수 없었습니다. 복신이를 사랑과 정성으로 치료했고 금방 손가락을 움직일 수 있었어요. 같은 해 평양의대에서 교수 청빙이 왔는데 복신이를 두고 떠날수가 없어서 복신이를 나진에서 평양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옮겨달라 부탁을 했지요. 그 부탁이 받아들여졌지요. 제가 복신이를 평양에서 돌보기 시작하자 다른 환자의 가족들이 복신이와 같은 증세를 가진 이웃 아이들을 본 적이 있다고 하더군요.

입소문이 돌아서 결국엔 북한 전역에서 장애아들을 가진 부모들이 아이들을 평양으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저는 평양 의대와 공동으로 재활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해 시월에 우인이라는 또 다른 사지마비 여아 환자를 치료하게 됐습니다. 제가 환자에게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친구들과 함께 걸어서 학교에 가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그 아이의 여선생님이 그동안 학교에 업어 데려다 주었다는 겁니다. 약 일년가량 집중치료를 했더니 우인이는 걸어서 병원을 퇴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퇴원



하는 날 제가 우인이에게 다시 꿈이 뭐냐고 물었더니 “선생님 같은 의사가 되어 나와 같은 아이들을 돕고 싶다.”라고 하더군요. 이 말은 들은 병원 의료진들도 함께 눈물을 흘리며 감격해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평양 의대에 뇌성마비 장애아들과 자폐아들을 위한 과목을 신설하는 일에 착수했습니다. 지금까지 많이는 아니지만 세 명의 의사를 훈련시켜 다른 병원으로 보냈고 최근에는 여러 명의 소아 재활 의사를 훈련시켰습니다.

소아 재활치료를 위해 의사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 미국 재활치료사들을 소개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북한의 자폐아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6월 이전까지 북한에서는 자폐성 스펙트럼 장애(Autism Spectrum Disorder) 아동들을 진단하거나 어떠한 치료도 소개된 바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30여명의 의사들이 평양 의대와 평양 어린이 병원 그리고 북한 장애인 연합에

서 자폐아와 그 가족들을 위한 치료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북한에 여행규제 조치가 내려진 뒤 사역에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2017년 7월에 미국 국무부는 북한에 대한 여행규제 조치를 내렸어요. 이로 인해 우리 가족과 사역에 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 규제는 오토 워비어를 구금하고 사망한 사건 때문에 생겨났는데, 사실 오토의 상황은 북한에 사는 다른 외국인과는 상당히 달랐어요. 약 200명의 미국시민들이 지난 몇 십 년간 북한에 거주하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구금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지금은 북미 간에 있는 정치적 긴장 탓에 우리 가족의 상황은, 비록 암울할 정도는 아니지만 매우 실망스럽습니다. 저희는 2018년 9월부터 이 나라 저 나라를 떠돌고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 외에는 어떤 아시아 국가로부터 체

류비자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죠. 현재로선 미국에도 짐이 없어요.

우리 가족은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길 원합니다. 불행히도 미 국무부는 성인에게만 북한을 출입할 수 있는 특별한 여권을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겐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어요.

저희 아이들은 현 상황에 무척 슬퍼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북한에서 열심을 다해 일하며 살았는데 말입니다. 여행 금지가 해제되지 않는다면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 사역에 전념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북한을 돕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에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북한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는 것이 긍정적인 변화와 발전을 가지고 온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의료지원과 인도주의적 지원 그리고 여러 개발 사업들은 북한 사회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열매를 맺으며 국가 간의 다리를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는 한반도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건설하고 있는 북한의 소아행동발달장애 어린이들을 위한 병동건설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유엔재제로 장애어린이들을 돕



〈쟁기〉를 운영하는 블루호프가 기증한 걷기 훈련 기구를 이용하는 뇌성마비 어린이

는 일마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상황에 압도되어 용기를 잃기 십상입니다. 이런 상황을 참고 견디며, 아울러 우리의 소명이 굳건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

이 인터뷰는 2016년 4월과 2018년 10월에 박성훈 형제가 진행했다. 조이 윤의 책 《기쁨의 발견: 북한에서의 10년 Discovering Joy: Ten Years in North Korea》(한국어 미발간)에 더 자세한 이야기가 담겨 있다. Amazon.com에서 영어판 책을 구입할 수 있다. 관련 홈페이지: joyinnorthkorea.com

미카엘과 마가렛타 자틀러

제이슨 란젤

1 525년 3월 취리히로 이사온 젊은 부부는 나중
에 자신들의 목숨마저 위태롭게 만든 성경공부
모임을 알게 된다. 이 모임은 시작된 지 두 달
밖에 되지 않았지만 종교개혁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고
있었다. 그들은 초대교회의 단순함으로 돌아가기를 고민
했고, 세례는 성인만이 받아야 한다는 확신에 이르게 되
었다. 결국 그해 봄 미카엘은 성인으로 세례를 다시 받았
고, 이런 행동은 당시 시민법과 교회법을 어기는 사형까
지 가능한 범법 행위였다. 미카엘과 아내 마가렛타는 이
제 새롭게 일어난 '재세례파' 또는 아나뱃티스트 운동의
일원이 된 것이다.

오늘 저는
당신의 도움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제 피로 봉합합니다.

1490년 남부 독일 지방에서
태어난 미카엘은 프라이버그 근
처에 있는 베네딕토 수도회에 입
회하였고 거기서 신부로 봉직했
다. 마가렛타는 베긴 수녀회 소속
이었다. 이 두 사람은 각기 당시에
일어난 종교개혁 사상을 받아들

였다는 걸 깨닫고, 함께 전 생애를 바쳐 그리스도만을 따
를 것을 약속한다.

취리히에서 미카엘은 아나뱃티스트 그룹의 리더가 되
었다. 이 활동이 불허되면서 부부는 도시로부터 추방되
었다. 모임을 지속시킬 방법을 찾기 위해 미카엘은 마틴
부처를 비롯한 다른 주류 종교 개혁가들을 찾아간다. 그
러나 이 부부의 생각은 당시 주류 개혁가들에 비해 훨씬
진보적인 입장이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당시로선 불법적인 아나뱃티스트
운동에 입문했지만 모두 흩어져 숨어 있는 상태였다. 결
국 1527년 2월에 미카엘은 진보적 인사들의 모임에 참여

하게 된다. 이 모임이 일어난 스위스 도시의 이름을 따라
솔라이타임 신앙고백 초안이 마련되었다. 이 초안은 그들
운동의 토대가 되었으며, 산상수훈에 기초한 것이었다.
이 글에서 신자들의 자발적인 세례만이 유일하며 종교에
대한 어떠한 강제도 거부하고 비폭력과 교회 내 서로 돌
볼 책임을 천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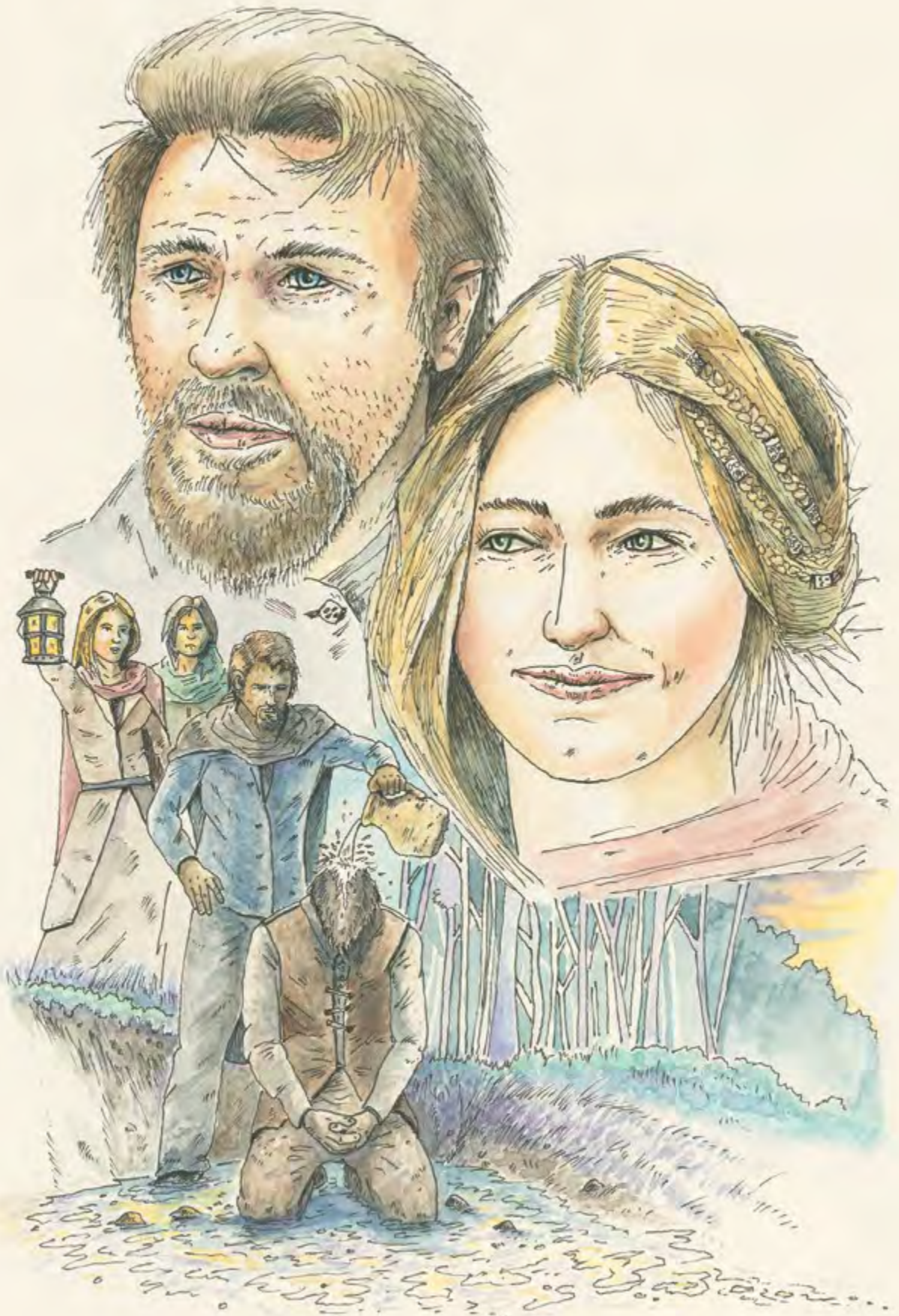
부부는 이 모임에서 돌아온 직후 오스트리아 군대에
체포되었다. 그리고 아나뱃티스트라는 죄목에 더해 적국
인 오토만 터키 전쟁에서 배신자로 낙인 찍혀 기소되었
다.

만약 터키군이 오고야 만나면 그들에게 저항하지 않을
것입니다. '너희는 살인하지 말라'고 성경(마5: 21)에 기
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들을 무찔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만약 전쟁
이 옳아서 내가 참여해야 한다면 그리스도 신앙을 모르
는 터키인들에 대항하기 보다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다른 경건한 교인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는 이들
에 대항할 것입니다.

이들에 대한 재판이 시작되자 당시 오스트리아 대공
은 군인들을 풀어 소요에 대비해야 했다.

닷새 뒤인 1527년 5월 20일에 미카엘은 고문 받고 산
채로 화형에 처해졌다. 처형장으로 걸어가면서도 구경꾼
들에게 회개를 촉구했고, 판관들을 위해 기도했다. 남편
이 죽은 후 8일 후에 부인 마가렛타도 벵카 강에 수장되
었다. 그녀는 차라리 남편과 함께 화형 당하길 원했다.

미카엘은 화형장에서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만이 길
이요 진리입니다. 제 흠이 드러난 바가 없으니, 오늘 저
는 당신의 도움으로 진리를 증거하며 제 피로 봉합합니다."
라고 기도했다. ➤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한다.**

**주님을 섬기기 위한 학교를
건설하기로 마음먹었으니,
주눅들지 말라.**

이런 믿음과 삶의 길을
정진한다면 결국 우린
하나님이 명령하신 길을
걷게 될 것이고 우리
마음에는 표현할 길 없는
**사랑의 기쁨이 넘쳐 흐를
것이다.”**

누르시아의 베네딕토 성인이
지은 규범에서

켄 알렉산더, ‘첫 탄생’, 2007

계간 쟁기

새로운 세상을 위해 땅을 일군다

www.plough.com/ko

쟁기출판사

Walden, New York, USA
Robertsbridge, East Sussex, UK
Elsmore, NSW, Australia